

참교회의 역사

아담부터 오늘날까지

Jairo P. Alves de Carvalho 목사

소개

지구상에는 수천 개의 설립된 교회가 있는데, 그들은 모두 교회가 아니라고 공언합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연결을 촉진하는 도관. 그러나 거의 모두가 의례와 가르침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것과는 다른 단수. 너무나 많은 다양성 속에서 다음과 같은 자연스러운 질문이 제기됩니다.

신은 그 모든 것 안에 존재하고 행동하는가? 내가 어느 길로 가든지 그 어느 곳에서든지 그분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종파의 바다에 빠져서 검색하는 것은 시장의 모든 노점에서 딱 맞는 과일
일을 찾는 것과 비슷합니다.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노점 주인의 비명과 악의적인 상인의 관심에서 귀를 돌리십시오.

무엇을 사고 싶은지 명확히 파악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을 눈과 손으로 구분하세요.

당신이 무엇을 위해 왔는지 찾으십시오. 마찬가지로 종교의 맥락에서도 단서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를 참된 교회로 인도할 성경적 사상. 다음 단락에서는

그 요약. 당신은 그것들을 더 잘 이해하고, 그것들의 성경적 기초를 보고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책을 읽으면서 오늘날 하나님의 참된 교회는 무엇인가. 이러한 이유로 권장됩니다.

챕터를 건너뛰지 마세요. 읽으면서 진실이 스스로 드러나게 하십시오.

간단히 말해서, 모든 세대를 통틀어 지구상에는 항상 단 하나의 참된 교회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참된 교회가 항상 같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서로 다른 교회들이 서로의 사명을 이어받았습니다.

말씀의 진리가 담긴 촛대를 가지라 이는 발에 등이요 발에 빛이니라

사람의 길”(시 119:105). 참된 교회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알고,

우리는 역사 전반에 걸쳐 참된 교회의 계승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예언은 다음을 지적했다.

과거에 모든 참된 교회가 출현했습니다. 그리하여 참된 교회의 출현은

우리 시대는 성경 예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되고, 성경적 예언의 성취로 출현한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그것은

참된 교회는 오늘날의 참된 특성을 가지고 끝까지 유지한다면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즉, 하나님의 말씀의 촛대를 들고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전하는 것입니다.

진실.

읽기에 앞서 마지막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날의 참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 일어났다는 진리를 진실하게 탐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언에는 지적된 사실을 검증할 수 있는 요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형

이방인을 위한 복음으로 알려진 누가복음은 이 가르침을 따릅니다.

저자는 서두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이 이 이야기의 이야기를 정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은 그 때부터 목격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해 준 것입니다.

처음부터 말씀을 전하는 자라 이 일을 너희에게 설명하는 것이 내게도 합당한 줄 알았노니

오 훌륭한 테오피루스여, 당신의 명령에 따라 이미 모든 일을 나에게 자세히 알려 주었습니다.

원칙; 이는 너희가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누가복음 1:4) 그것은 알려져있다

대중이 과거 세대의 실수에 대한 설명을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만,

현재시제의 주인공 공개는 늘 논란을 불러일으킨다. 그리고 아닌 것 같다

그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이 다음과 같은 동기로 인해 발생한다는 암시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차이로 인해. 그러나 행동의 원동력은 다음과 같은 욕구일 때

진실한 자의 믿음을 명확하게 하고 확립하게 하되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다.

지난 세대의 용감한 종들.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기록한 거룩한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끼지 아니하셨음이 분명합니다.

남자의 평판. 이전에 그는 오류, 심지어 가장 신성한 오류라도 오류로 볼 때마다 묘사했습니다.

미래 세대에게 인생의 길을 둘러싼 위험에 대해 경고하고 경고하는 목적

구원. 모세는 그 세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죄를 상기시켰습니다.

그를 노엽게 하여 화를 내어 바위에 부딪히게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하라 하셨으니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네 말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가

요단을 건너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신명기 4:21).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영적인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모이세스. 그들은 그의 죄를 신명기에 기록했다고 해서 그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위한 간증. 또한 모세의 형제 아론과 미리암도 그가 행한 일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심지어 그의 실수와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민수기 12장 참조). 그들은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기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과 평화는 그들에게는 충분했습니다. 당신의 실수를 기록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들은 여전히

이것이 어떤 식으로든 동료 인간의 구원에 도움이 된다면 기쁘겠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 율법을 여호와와 언약케를 멘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모든 사람에게 주었으니

이스라엘의 장로들.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매 칠년 끝 그 해에는

해방의 해 곧 초막절에 정하였으니 그 때는 온 이스라엘이 모일지라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 율법을 온 이스라엘 앞에서 낭독하고

귀. 그 안에 있는 백성과 남자와 여자와 어린이와 외국인을 모으라

네 성문에서 나와 네 하나님 여호와를 듣고 배우며 경외하게 하라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라”(신명기 31:9-12). 역사의 설명에서 볼 수 있는 동일한 원리

신명기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오류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책에는 포스트모던 교회의 폭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1장 오직 하나뿐인 참된 교회

성경은 교회의 사명을 언급할 때 항상 단수형으로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언급하신 한 무리로서 그분의 교회에: “나에게는 아직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모으는 것도 내가 합당하니 그들이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가 되리라.” (요한복음 10:16) 하나님은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세우셨으니 교회의 수장. 이는 그의 몸이니라... 그러므로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알려지라”(엡 1:22, 23; 3:10). 하나님께서는 일련의 교파를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처럼 불일치하는 신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도 하나이고 세례도 하나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5) 이는 참된 신앙을 뒷받침하는 단일한 교리입니다.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모퉁잇들이 되시느니라”(엡 2:19-20). 즉, 참된 교회에서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가르쳤습니다. 수많은 성경적 전통과 해석이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의 본질과 모순되어 교회 교리로 변형되었습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뿐이다 사실이며, 그것은 오직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말한 것에 근거한 단일한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로 썼습니다.

제 2 장 참된 교회의 특징

삼의 날인 안식일 준수

첫 번째 교회는 창조 여섯째 날에 세워졌습니다. 완전하고 죄가 없는 아담 (남자를 뜻함)과 그의 아내 하와는 첫 번째 토요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받았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 모양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오후가 되었고 여섯째날 아침...

하나님이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일곱째 날에 모든 일을 쉬시고 안식하시니라 그의 일, 그가 한 일. 그리고 하나님은 일곱째 날을 복 주시어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 안에서 안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드신 그의 모든 작품. 이는 하늘과 땅이 있을 때의 근본이니라 하인.” 장군. 1:1, 26, 28, 31; 2:2-4.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본을 따라 첫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특정 상황에서는 일곱째 날에 대하여 일렀으되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니... 자기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 자신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히브리어. 4:4, 10).

그 날부터 죄가 있기 전부터 안식일이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에 기념일이 되었느니라 사람들. 약 2,500년 후, 하나님은 모세에게 손가락으로 판에 기록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조를 언급하면서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이유를 지적했습니다.

“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는 옛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을 창조하였음이니라. 바다와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으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출애굽기 20:8-11)

따라서 행성의 유일한 주민인 거룩한 부부로 구성된 최초의 교회는 다음과 같이 예배했습니다.

토요일의 창조자. 처음부터 주일의 일곱째 날을 지키는 날은

여호와께 구별된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한다는 뚜렷한 표징이었습니다.

참된 교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율법을 전하실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에

만나를 금요일에 두 배로 주어 백성들이 당일엔 거두지 못하게 하는 기적

신성한. 안식일에 하나님께 나아오려는 백성들의 고집에 직면하여,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언제까지 내 계명과 내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16:28). 일어난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기 전에도 자신들의 의무를 알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계명을 선포하는 일. 그들은 모세에게 무지함을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단순히

그들은 자신들이 잘못된 것을 알고 바로잡았습니다. 모세는 창세기를 쓸 때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의 조상 아브라함에 관한 하나님의 증거라 그가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켰으며

내 율례와 내 법도라”(창 26:5). 그날의 가르침을 보여주는 것은

나머지. 그리고 그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여러 세대를 거쳐 그의 부모로부터 그것을 받았습니다.

안식일의 교훈은 교훈과 모본으로 아담으로부터 다음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지구상에서 하나님의 금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의 일을 기록하라고 명하셨다.

준수는 언제나 그분과 그분의 백성 사이의 표징이 될 것입니다.

안식과 영적 회복의 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키지니 영원한 언약으로 대대로 안식일을 지키느니라.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는 영원히 표시; 이는 옛세 동안에 나 여호와와 하늘과 땅을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쉬어 상쾌하였음이니라”(출 31:15-17).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그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자손뿐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그리고 그들에게 있는 이방인의 자손에게도 여호와께 나아와 그를 섬기며 여호와와 이름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너희 종들 곧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와 나의 콘서트가 있으면 내가 그들을 내 성산으로 데리고 가서 기도하는 내 집에서 기념하리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사 56:6, 7). 그것은 또한 보장합니다 안식일은 성도들에 의해 영원토록 지켜질 것입니다. “새 하늘과 내가 지을 새 땅이 내 앞에 있으리니 너희도 이와 같으리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후손과 당신의 이름. 그리고 그것이 한 월삭에서 다음 월삭까지, 그리고 한 달 동안 계속될 것인가? 토요일부터 다음 날까지 모든 육체가 와서 내 앞에 경배하리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사 66:22, 23). 그러므로 안식일 준수는 분명히 성경의 특징이다. 모든 시대의 참된 교회.

계명에 순종함

아담은 기원전 4000년경에 창조되었다고 믿어진다. 토요일. 모세는 그로부터 약 2500년 후인 기원전 1450년경에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분명하다 안식일은 기록된 율법이 있기 오래 전에 제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제정되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율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범법한 것 때문에”(갈 3:19) 선포되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게 합니다. 사람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율법의 계명을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제시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글쓰기. 죄 이전에는 사람이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장식. 이는 안식일의 완전한 준수를 통해 인간이 창조주와 교통하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유지되었고, 그분의 성품에 대한 지식이 깊어졌으며, 그분의 사랑에 대한 동화가 완전해졌습니다. 남자는 충성심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의 목적이 이해되고 다음 구절이 더 잘 이해된다. 토요일은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막 2:27).

죄가 있는 후로 사람들은 점차 안식일을 지키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의 메시지의 어조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20:8. 하늘의 빛의 보고로 택함 받은 이스라엘도 그를 버렸느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출 20:8). “거룩하게 하다”라는 단어 신성하게 하다라는 뜻이다. 토요일과 관련하여 토요일을 분리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신성한 - 예배를 통해, 기도와 연구를 통한 친교를 통해 하나님과 직접 접촉하기 위해

성경과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죄 이후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바뀌었습니다.

안식일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니(“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 요한복음 14:6)

그날은 그리스도와와의 접촉을 위해 예약된 날입니다. 계명을 지키면 사람들은 이렇게 될 것이다.

멀어지는 대신 구주께 더 가까이 다가가십시오. 우상 숭배자는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와의 연합은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사용되는 도구임을 알 수 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그분 자신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즉, 귀하를 돕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분의 율법에 대한 충성과 순종을 다시 소개합니다.

안식일을 잊어버리자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모세 시대에 기록된 형태의 율법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그것이 “왜냐하면” 주어졌다고 말합니다.

범법한 일에 대하여”(갈 3:19), 이는 사람들로 자기 행위의 죄됨을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구세주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가을의 길을 제시합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화해하는 과정에서,

그는 그 반대를 해야 한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마음이 회개하고

신자가 새로워졌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이미 지나갔느니라

그들은 통과했습니다. 보라, 모든 것이 새것이 되었느니라”(고후 5:17). 하나님의 뜻과 관련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람아, 계명에 순종하는 삶이 시작된다. “믿음으로...우리가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신자의 마음(롬 3:31). 이것이 새 언약의 성취이다. “보라, 날이 이르러라 말씀하시되

주여 내가 이로써 새 언약을 세우리니... 이 언약은 이 언약 후에 지킬 것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날이 지나면 내가 이스라엘 족속에게 행하여 내 법을 그들의 이해와 그 마음에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그것을 마음으로 쓰겠습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히 8:8-10).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의 믿음

예수님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요한복음 15:5)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은 순종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권

인간은 스스로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분께 주어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마 28:18).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내 힘을 붙잡으라”고 초대하십니다.

나와 화해하자”(사 27:5).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말했습니다. 그 남자

무력하고 자신의 언약함을 알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 순종할 것입니다. 이에

참된 신자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장 기쁘게 자랑하리라.

약함을 약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속에 거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나는 약함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인하여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환난 중에 있는 것입니다. 왜 언제?

나는 약하므로 강하다”(고후 12:9, 10).

사람을 그리스도께 묶는 밧줄은 믿음입니다. 사람이 짠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는 구원받았어. 믿음으로; 그리고 이것은 당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에베소서 2:8,9). 믿음은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매력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십자가의 무한한 희생으로 그분은 나의 모든 허물과 실수를 없애셨습니다. 나는 그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표현되었습니다. 나의 실수가 나에게 가져온 죽음 (“죄의 삯은 사망”) 그는 값을 치르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거저 주시는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 롬 6:23) 이 모든 것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내가 그분께 무엇으로 드리겠습니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리이다”(시 116:12, 13). 행복하게 나는 나에게 주어진 은혜와 자비를 받아들이고 나의 유일한 분이신 그리스도를 붙잡겠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을 보장합니다.

믿음은 “발생”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 마음에 두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며,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알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영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요한복음 3:8). 하나님의 영은 언제나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양심. 혹은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그분은 “우리 마음 속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복음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감동케 하사 복음이라 그분의 구원과 은혜에 대해. 우리가 이 강력한 행동에 저항하지 않는다면 믿음의 식물이 우리 안에서 싹트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고후 5:14).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한 역사의 결과인 이 믿음을 통해 우리는 확신을 얻습니다.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우리가 모든 유혹을 이기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명. 아무것도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분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그들을 땅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 손입니다”(요한복음 10:27, 28).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순례하시는 동안 참된 믿음이 그 안에서 나타났습니다. 이 선물을 받는 모든 사람은 단순히 스승이자 구세주의 삶을 재현하는 것일 뿐입니다. 스스로. 위의 내용과 일치하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생활은 육체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갈 3:20). 참된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참된 교회에 항상 존재하는 필수 요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니라”(히 11:5).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때...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시력을 얻느니라”(요일 3:22). 그러므로 교회는 믿음으로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의 본문은,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느니라. 여기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나님과 예수에 대한 믿음”(묵시록 14:12)입니다. 참된 교회에는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이니라”

성경의 마지막 책은 여전히 말세의 교회가

혹독한 시험을 겪으면서 여러 차례 사상자가 발생한 후 충실한 남은 자들은 빛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예언에 특집. “용이 분노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남은 자손 곧 그 남은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졌느니라.” “예수님의 증언은
예언의 영”(계 12:17; 19:10). 그러므로 알 수 있듯이 예언의 은사는 세상 끝날까지
참된 교회에는 나타나리라. 이는 세상에 대한 의미를 세상에 알리겠다는 뜻이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예언들. 다니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 말을 담고 이것을 봉인하라
책”(단 12:4). 요한계시록에는 책이 펼쳐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그 우편에 앉으신 이가 계시더라.
안팎으로 기록되고 일곱 인으로 봉한 책이 보좌에 있으니 내가 보니 어린양이 있고...
와서 책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이르되, 당신은... 책을 펴기에 합당하시도다...
인을 치라”(계 5:1-9). 요한계시록에는 다니엘의 예언이 드러납니다. 이는 이미 다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책 소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보이시라고 주신 것이라...” (계시록 1:1).
같은 구절은 지구상에 빛이 드러날 선택된 자들의 그룹이 있음을 지적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를 보내셨느니라.”

그러므로 말세의 참교회는 하늘이 인정한 유일한 교회이며,

그러므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해의 모든 빛을 세상에 제시하십시오.

그러므로 예언에 대한 이해를 소유하고 전파하는 것이 참된 교회의 특징이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서.

서로 다른 그룹이 흩어져 있고 각각 약간의 빛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교회를 위한 일이야
하나님께서 이 세대의 인류를 위해 모든 빛을 주시는 선택된 분입니다. 소통이 있다
천사들을 통해 천국과 이 교회 사이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 사실은 수세기 동안 예언되어 왔습니다
과거에는 “너희 아들과 딸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는
젊은이들은 비전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때에 내가 또 남종과 여종들에게 또 내 것을 부어 주리니
영”(요엘 2:28, 29). 많은 사람들은 이 약속이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
미래. 그러나 지금 경험을 통해 그 일이 성취되는 것은 참된 교회의 특권입니다.

요약:

정리하면, 참 하나님의 교회는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특징입니다.

안식일을 포함한 하나님의 계명; 예수의 믿음; 그리고 예언의 은사는 이해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대의 역사에 성취될 예언을 포함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의 예언

인류의 경우,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까지.

3 장

수세기에 걸친 "황금실"

진리의 빛이 담긴 촛대를 휘두르는 사명을 서로 다른 손이 이어받았습니다

사람의 “발에 등이요 길에 빛”이신 말씀(시 119:105). 그들

그들은 그들의 시대에 적합한 신성한 진리를 세상에 전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러 세대에 걸쳐 “황금 실”을 구성했습니다.

태초에 아담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불신자(가인)가 의로운 아벨을 죽였습니다. 영형 아담의 다음 아들은 셋인데, 그에게서 에노스가 태어났다. “그러자 그는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여”(창 4:26). 그의 후손 중에는 선지자이자 “행한 예녹”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창 5:24; 유 1:14). 그의 증손자 노아는 멸망에 관한 계시를 받았다

홍수로 세상이 멸망함(창 6:8, 9, 13-17)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함께 내

언약”(창 6:18). 노아에게는 “셈, 함, 야벳”이라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창 5:32). 아브라함이 속한

노아로부터 십대손 셈의 자손이라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보물의 보관자로 존귀히 여기셨느니라

인류에게 약속하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창 1:1)고 하셨습니다.

12:3). 그에 대하여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계명을 지켰다.

나의 계명과 율례와 나의 법을 지키라”(창 26:5).

참된 교회는 시간이 지나도 항상 똑같지는 않았습니다. 선택받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을 때

그들은 부모의 모범을 따랐고 다른 사람들은 책임을 맡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는데, 그 사람은

에서와 야곱을 낳았으니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장자(장자)는

가족의 영적 유산, 온라인 세계를 위한 신성한 빛의 저장소가 됨

연속. 그러나 에서는 만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장자의 명분을 경히 여겼”습니다(창 3:1).

25:34). 그리하여 그 축복이 야곱에게 전해졌고, 나중에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창 32:28). 그 후 그의 후손은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보관하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세기.

다윗의 통치 후에 이스라엘은 두 왕국으로 나뉘었는데, 남쪽 왕국은 여러 지파를 모았습니다.

유다와 베냐민과 북쪽 지파와 그 밖의 열 지파 (열왕기상 12장) 회사 설립 직후

왕국 북쪽 지파들은 하나님을 배교하고 “두 금송아지” 숭배로 돌아섰습니다

(열왕기상 12:28)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남쪽 왕국에서 계속 보존되었습니다. 이후

유다 지파의 수가 더 많았으므로, 남쪽 왕국의 시민에 대한 언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유대인”이라는 이름은 그리스도 탄생 때까지 수세기 동안 지속된 종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옛적에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마침내 “아들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교회에 빛을 직접 보내셨습니다. (히브리서 1:1) 그러나 선택된 사람들은 그 빛을 거부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불의한 자들의 손으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로마서(행 2:23),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핍박하고” 그러자 그들은 모두 흩어졌습니다.” (사도행전 8:1) 그들은 자신들의 영역에서 빛을 몰아냈고, 마음속으로 빛을 환영했던 자들과 함께 빛은 사라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목회하는 기독교 교회. 한때 선택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진실. 그 자리에 다른 하나가 세워졌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들이 증언하여 이르되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 건축자들과 주께서 버린 돌이 아니라 코너 헤드에 의해 배치되었습니다.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느니라”(행 4:10-12).

초대교회의 예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회원 수가 가장 많았고 통치자의 총애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군중"은 오순절 전에는 다락방에 모인 사람이 “120명”(행 1:15)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당신의 회원들은 “이 세상의 배설물”과 “모든 것의 쓰레기”로 여겨졌습니다(고전 4:13). 그러나, 그 세상이 일반적으로 그녀를 멸시함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하늘의 계시로 영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빛을 받아들이고 등록하고 선포하는 것은 그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비록 참된 교회가 그토록 높은 책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성한 역사는 연속적인 시대에 관련된 슬픈 장을 기록합니다. 반복해서 걷다가 얼마 동안 받은 빛에 순종하여 선택된 교회의 지도자들은 다음과 같은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하늘에서 보낸 어떤 빛을 거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간과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먼저 주셨기 때문이었을까 회중 성원들이거나 단순히 세상에 대한 사랑이 그들을 눈멀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 순종에 더 관심을 가졌으나 결과는 같았으니 그들은 빛을 거부하고 그들은 메신저들을 그들의 친교에서 제외시켰고, 그들을 박해하고 죽였습니다(이것이 그들의 선택이었다면). 허용된). 거부의 결과로 포용하는 이들과 포용하는 이들 사이에 내적 파열의 과정이 일어났다. 다른 것들은 빛을 거부하여 두 개의 윤곽선 블록을 형성했습니다. 그 후, 그녀는 성숙해졌습니다. 공개 분리.

이로 인해 두 교회가 생겨났는데 첫째는 하늘의 빛을 거절하고 인간이 옹호하고 유지하는 종교의 형태와 교회의 기반을 유지했으며, 대다수의 사람들을 통제합니다. 두 번째는 박해를 받고 결정에서 배제된 사람들이 형성한 것입니다. 세상적인 이점이나 기반 시설이 거의 또는 전혀 없이, 받은 신성한 빛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나 하늘의 빛을 즐기며 더 많은 빛을 받아 새것이 되었나니 그 시대에 적합한 신성한 진리의 보관소. 핍박하는 교회가 되다 하나님의 눈은 현대의 많은 종교적 측면 중 하나일 뿐입니다. ~하는 동안 박해받는 여인은 그분의 인도 사업에서 그분의 “황금 실”을 계속하기 위해 그분에 의해 사용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그분의 종들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대로 진리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위에 드러난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교회가 배교의 길을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만약 그것이 스스로 시정되지 않는다면 그 뒤를 이을 다른 사람의 출현을 선언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다음 장에서 보게 될 참된 교회의 또 다른 특징을 지적합니다.

제4장

성경의 예언에 나타난 참된 교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끈질기게 반역하였을 때, 그분은 자신의 길을 따르시면서 자신을 대신할 다른 사람이 선택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선택 더 이상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의 자리는 다른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의 지위에 합당치 않음을 보여 반역을 하였을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게 하였으니 이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음이라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리고 사무엘이 돌아섰을 때 만일 가면 그 사람이 당신의 망토 끝을 잡고 찢을 것입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나라가 오늘 당신에게 속하였으므로 그것을 당신보다 나은 이웃에게 주셨느니라”(삼상 15:26-28). 그리하여 새로운 왕의 탄생이 선포되었습니다. 얼마 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데이비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버렸으니 네가 언제까지 그를 불쌍히 여기겠느냐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아니하느냐? ...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겠다. 내가 당신의 자녀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왕을 세우매 사무엘이 기름 그릇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으니라 그것은, 그 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크게 임하시니라”(삼상 16:1, 13).

성경 역사 전반에 걸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대하시는 이러한 방식은 여전히 남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변하지 않은.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할 수 없는 반역과 배도에 빠진 것을 보고 영감을 얻었습니다.

에스겔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자신의 타락과 기독교 교회의 출현을 예언합니다. 여기에 예언: “그리고 너, 더럽고 불경건한 이스라엘의 왕자여, 그의 날은 극도의 사악함의 때에 올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면류관을 벗고 면류관을 높이라. 이것은 동일하지 않을 것이다; 높이다 겸손하고 교만한 자를 낮추느니라. 내가 그것을 엮고 엮고 엮고 그것을 두리니 다시는 없으리라 마땅히 받을 자에게 오라 내가 그것을 그에게 주리라”(겔 21:25-27).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되는 새 교회가 출현한 때는 예언에서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다니엘 8장 14절에는 “이천삼백 저녁까지 이르고 저녁까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침이 되면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처음에 선지자가 환상을 받은 직후에는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누구든지”(8:27). 그러나 얼마 후에 가브리엘 천사가 보내어 설명하였다.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칠십 이레로 기한을 정하였으니...

깨닫는다: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반차가 나갈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이르기까지 일곱 이레와 칠십이 이레니라”(다니엘 9:24, 25). 복원 및 재건축 명령 예루살렘은 시간을 계산하는 출발점이었습니다. 법령에 따라 이행되었습니다. 기원전 457년 아닥사스다. 그 이후로 69주(7 + 62 - 25절), 또는 메시아가 오기까지 483년이 지났습니다. “기름부음 받은 자”라는 단어는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으로 기름부음을 받으신 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곧 물에서 나오시니 보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그에게 임하여”(마 3:16). 기원전 457년부터 483년을 계산하면 서기 27년에 이른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받으시고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다니엘은 다음과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네 백성과 네 거룩한 날을 위하여 칠십 이레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도시”. 이는 이스라엘이 여전히 민족으로 간주되는 기간에 해당합니다. 선택되었습니다. 합하면 490년(70주 x 7일)이 됩니다. 그들은 우리를 기원전 457년부터 서기 34년으로 데려갑니다. 올해 안에, 유대인들은 사도 교회의 집사인 스테반을 돌로 쳤습니다. 그러다가 “그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고; 그리고 그들은 모두 온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사도들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그러나 흩어진 사람들이 각처로 가니라 말씀을 선포하니라”(행 8:1, 4). 복음은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시간 택하신 백성은 끝났으니.

유대 교회는 사도들이 계승했습니다. 그 이후로 약속을 읽어보면 구약성서의 이스라엘은 후손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나온 피가 아니요 오직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니라 바울이 영감을 받은 것처럼 기록하라 겉모습이 유대인이 아니며 겉모습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도 아닙니다. 실물로.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는지니라.”(롬 2:28, 29). “이스라엘 사람이 다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니라. 또한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렇지도 않습니다. 모든 자녀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니라 자손으로 간주됩니다”(로마서 9:7, 8). 즉, 어린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이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세기에 걸쳐 교회가 여러 파벌로 분열될 것을 예언하신 것도 예언을 통해서였습니다. 이후의 시대와 미래의 교회의 출현은 교회를 회복하려는 목적으로 진실. 사도 교회 시대에 여전히 배도가 시작되었음을 언급하는 편지에서 묵시록의 첫 번째 교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은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지 않을 때, 네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계 2:4, 5). 영형 사도 바울은 자신의 순교(서기 66년) 이후에 배교가 시작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교회: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갈 것을 내가 아노니 그들은 양떼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 가운데서 다음과 같이 말할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약한 자라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 함이라”(행 20:29, 30). 같은 연설에서 마치 배교의 동기가 무엇인지 보여 주고자 그는 자신의 태도를 제시했습니다.

거짓 교사들, 그의 추종자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내가 아무 사람의 은도 탐하지 아니하고 그의 것도 탐내지 아니하였노라”고 말하였다. 금도 없고 의복도 없느니라”(행 20:33).

바울은 유일신론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사도 교회의 신앙을 선언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결: “하늘에나 땅에나 스스로 신이라 하는 자들도 있느니라

(신이 많고 주가 많은 것같이) 우리에게는 하나님 곧 아버지가 한 분이시니라”(고전 8:6).

그러나 그가 죽은 직후에 사람들이 일어나 “삼위일체” 신앙을 선포했습니다.

그 당시 알려진 바와 같이 그 기원은 의심의 여지 없이 이교도였습니다. 가톨릭교회는 이를 계승한다.

측면에서 볼 때, 그것은 다른 모든 교리의 기초를 삼위일체에 두고 있습니다(출처: 가톨릭 교리문답). 그러므로 만일

비록 그것이 사도 교회의 연속, 즉 직접적인 영적 혈통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 그녀는 '늑대들과...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파괴된 말을 하려 하였느니라”(사도행전 20:29, 30). 그 사람들

그들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세운 진리를 파괴하려고 일했습니다. 에 있음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내지 아니한 사도의 행로와 대조됩니다.

지도자들은 금, 은, 값비싼 옷을 너무 많이 축적했기 때문에

이 교회에 관한 계시: “자주색과 진홍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가 있고 그의 손에는 가증한 물건과 더러운 것이 가득한 금잔을 가졌더라

그 음행으로 말미암아”(계 17:4).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대로 이단 세력은 촛대를 빼앗겼습니다. 이렇게 이해된다

왜냐하면 촛대는 빛을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의미에서 성경은 “우리 발의 등불”입니다.

내 길에 빛이시라”(시 119:115). 말씀의 진리를 거부함으로써(유일신교-하나

아버지 하나님)을 바울이 가르친 것을 인간의 이론(삼위일체)으로 대체한 것이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그들의 가슴에서 빛의 촛대를 떼어냈고,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갔다

진리에 충실한 교회의 또 다른 분파는 소수를 대표하고

수세기 동안 혹독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 노선을 따라 북부 이탈리아의 왈도파 교회들은

북아프리카 교회 , 그리고 여기저기에 있는 다른 사람들, 신실한 사도 교회의 남은 자들입니다. 당신의

묵시록의 두 번째 교회인 서머나의 예언에서 그 존재가 지적되었습니다. 편지의 말

이단파의 구성원들로부터 받은 모욕, 즉 다수와 박해와

그들은 순수한 진리에 대한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 직면한 위협에 직면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 재물이 가난하여

그러나 믿음이 풍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그러나 너는 부자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실상은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하는 자들에 대한 모독이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너희가 고난을 당할 일을...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계 2:9, 10).

신실한 교회들은 무명 속에 남아 있었지만,
가톨릭 교회와 많은 사람들은 빛이 지구에서 완전히 꺼질 것처럼 보일 때까지 굴복했습니다. 예언
요한계시록 세 번째 교회의 그림이 이때를 묘사하고 있다. 남아 있는 소수의 충실한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가톨릭 교도권의 비성경적인 교리, 즉 가톨릭 교도권의 교리를 받아들이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우상(형상), 특히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사는 곳은
사탄의 권세와 내가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내 믿음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발락에게 던지기를 가르친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네게 있기 때문이니라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두어 그들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매춘 행위를 한다”(계 2:13, 14).

예수님께서서는 예언 중에 자신이 마귀와 싸울 때가 가까웠다고 말씀하십니다.
가톨릭 교회의 오류: “내가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계시록 2:16).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지배적인 교회 안에서도 신실한 종들을 세우셨습니다.
인간의 가르침과 전통을 깨뜨리고 사회를 개혁하려는 목적으로 항의 시위를 벌이십시오.
교회. 이 작품의 주요 이름은 의심할 바 없이 독일 수도사 마르틴 루터이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라는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로마 교직의 모든 분노에 맞서야 했습니다.
당시 교회가 가르쳤던 것처럼 참회의 행위나 면죄부를 구입함으로써(롬 1:17). 영형
개혁의 전환점은 서기 1517년이다. 그래서 교회의 오류가 강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히 4:12)으로 싸웠고, 루터와 많은 사람들이 능숙하게 휘둘렀다.
단순히 인간의 권위에 의한 많은 미신과 의식에서 벗어나 다음과 같은 원칙을 받아들였습니다.
개신교의 “sola scriptura”(성경과 그것만이 신앙과 실천의 법칙임). 이후
하나님의 종인 개신교는 여러 세대에 걸쳐 진리를 재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가톨릭교의 오류를 확인했습니다. 여러 개의
그 이후로 여러 종파가 등장했고, 모두 일반 종파로 분류되었습니다.
프로테스탄트들은 그들의 메시지의 주요 오류에 대해 "항의"하는 어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급된다
일부 이름: “루터교, 아나뱃티스트, 침례교, 감리교 등”.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배적인 교회는 모든 시도에 저항했습니다.
그것을 개혁하려고 했으나 여전히 오류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보고하셨습니다.
교회를 고대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내 이세벨과 비유적으로 비교한 것입니다.
동시에 여왕과 바알을 숭배하는 창녀. 그분은 종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이 내 종들을 가르치고 속이며
음행을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라”(계시록 2:20).

이어 그는 그녀가 관용을 통해 패권을 누렸던 오랜 시간을 언급한다.
신성: “나는 그들에게 매춘 행위를 회개할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Apoc.
2:21). 역사에 따르면 로마는 서기 538년부터 1260년 동안 통치했는데, 그 때 칙령이 내려졌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1798년까지 로마의 주교를 교회의 수장으로 임명했습니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군대의 베르티에 장군은 교황 비오 4세를 감옥에 가두었고, 교황은 2008년에 사망했다. 망명. 예수께서는 그녀의 몰락을 예언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그를 침상 위에 눕히고 그 여자와 간음하면, 그들이 자기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이 닥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죽어버릴 것이다 그러면 모든 교회는 내가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게 되리라. 그리고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계 2:23).

그런 다음 예수님은 당시 자유를 추구했던 충실한 개신교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가톨릭 교회가 가르친 오류와 전통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 교훈을 받지 못한 자들은…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계 2:25).

개신교인들은 한동안 지구상에서 하나님의 금실을 따랐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시작했던 선한 일을 중단했습니다. 개혁의 가장 큰 실패는 중단이었다 개정. 그들이 앞으로 나아갔다면 삼위일체 신앙과 같은 몇 가지 오류를 버렸을 것입니다. 특히 사도 시대 교회 시대의 배도의 뿌리.

성경을 연구하고 순종하려는 개신교인의 초기 의지를 언급하며, 예수님은 믿음의 단순함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게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계시록 2:25). 그러나 최초의 개혁가들의 뒤를 이은 세대들은 그 조언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교황의 몰락과 박해의 종식이 목격된 곳에서 한때 순수했던 교회는 그는 세상적인 관행을 흡수하면서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의 조언은 “때까지 충성을 유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간다”(계 2:25). 이 말은 메시지의 성격을 분명하게 나타냅니다. 그리스도교국에 전파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백성을 찾으러 이 땅에 곧 돌아오신다는 소식입니다. 악인을 심판하라. 그러나 그 당시 참된 교회는 자신도 모르게 빛을 참조하십시오. 예수께서는 다섯 번째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당시의 자신의 상태를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사데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내가 네 행위를 안다. 당신은 살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경계하여 죽게 된 나머지 사람들을 확인하라 나는 생각하지 못하였느니라 너희 행위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니라. 그러므로 네가 받은 것과 들은 것을 기억하고 지키라. 회개하다. 만일 일까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네게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내가 오리라”(계 3:1-3).

사데의 영적 상황에 처해 있는 교회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분의 진리입니다. 그는 그녀가 그를 기대하지도 않은 채 갑자기 그녀에게 올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느 시간에 당신에게 올지 당신은 알지 못할 것입니다.” 로 개신교 교회는 그들의 방문 시간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공언하는 교회 사데에 대표되는 자는 하늘의 빛을 알지 못하고 배척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니라. 회원들은 영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이 상태라면 당연히 교체되겠지만 다른 것을 위해. 그리고 예언적 역사가 보여주듯이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1820년대 중반 미국 침례교인 윌리엄 밀러(William Miller)라는 사람이 그는 다니엘 8장 14절의 예언을 연구하면서 그 예언이 1844년에 성취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짧은 줄에 따르면, “이천삼백 저녁과 아침까지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고 했습니다.

시간 계산의 시작은 BC 457년 아닥사스다의 칙령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작은. 그로부터 2300년이 흘러 1844년에 끝났다.

비록 성경적 근거는 없었지만 당시 지구가 하나님의 성소라는 일반적인 견해가 있었지만 그는

이 기회에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로 재림하셔서 땅을 정결케 하시고

당신의 사람들을 찾으십시오. 당시의 빛으로 볼 때 누구도 그의 말을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가르침과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식이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기독교는 특히

설교의 중심지인 미국은 재림기별을 위한 두 부류로 나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에 반대합니다.

새로운 참된 교회를 잉태하는 움직임은 다음과 같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지난 세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첫째, 당파 간 내부 분열이 있었고,

그리고 모두가 각자의 교파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성숙해졌습니다.

눈에 보이는 분열, 재림신자들이 배제되거나 단절됨

경우에 따라 자발적으로 별명을 얻은 독특한 사람들로 연합

"재림 교회".

재림교인들은 성실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크게 실망했습니다.

예언(1844년 10월 22일)에 지적되었으나 예수님은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시간에 관한 해석

예언의 성취는 만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취되어야 할 사건에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나중에서야 알게 됐다. 성서에 따르면, “성소”라는 단어는 행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땅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사역하시는 하늘의 건물에 대한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이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거기서 그는 성소에서 섬기는 일을 하시고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히 8:1, 2). 들어가자마자

마찬가지로 그분은 부활하신 후에 사람들을 대신하여 중보자로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성경이 증거하듯이 그분의 기도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딤후 2:5).

마지막 때에 그분의 교회를 찾기 위해 이 땅에 오시기 전 그분이 마지막으로 하신 일은

하늘의 기록서에 기록된 신자들의 죄. 이와 관련하여 성서는 우리 모두가 다음과 같이 알려 줍니다.

우리의 작업이 기록된 책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르되 나의 하나님이며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내 하나님의 전과 그 규례에 베푼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옵소서”(느 13:14).

예수께서는 모든 시대에 그분의 봉사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심판하셔서 그들의 상황을 정의하셨습니다.

영원한 삶 아니면 죽음.

시편 필자는 하나님의 종들을 박해하는 신자라고 공언하는 자들에 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의 책에 기록되고 의인과 함께 기록되지 아니하리로다”(시 69:28). 그리고 인내하는 사람들에게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흐리지 아니하리니; 그것은

내가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계 3:5). "나, 나 자신,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사 13:1). 43:25). 그분은 마침내 그분의 충실한 백성의 죄를 지워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작품은 미리 그려져 있었습니다 종교력의 마지막 날인 칠월 십일에 히브리인의 의식에 따라 월. 첫 번째 달은 춘분 이후 첫 번째 찰나의 달로 시작되었습니다. 항상 3월에서 4월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따라서 일곱 번째 달은 9월과 일치합니다. 십월. 종교적인 해에는 각 가족 대표가 성소에 나타나서 적어도 한 번은 자기 가족의 죄를 위하여 자기 제사를 드리고 그의 믿음을 나타내었느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한 해의 마지막 날에는 스모(Sumo) 히브리 제사장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을 대표하여 정결케 하는 일을 하였으며, 또는 죄의 삭제. 그 날에만 그는 그 방의 가장 안쪽 칸에 들어갔습니다. 지성소라 불리는 성소는 휘장으로 이전의 성소와 구별되었느니라.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대제사장 아론에 대하여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형 아론에게 명하여 성소에 들어가지 말게 하라 항상 휘장 안에 있는 성소 곧 법궤 위에 있는 속죄소 앞에 그는 죽지 않는다; 내가 속죄소 위 구름 가운데 나타나리라. 이것으로 Aaron은 성소: 속죄제를 위하여 수송아지 한 마리... 그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요 당신을 정화하기 위해; 그리하면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서 정결함을 받으리라”(레 16:2, 3, 30).

이 일을 할 때 성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분명히 명령받았습니다.

“또 속죄하러 들어갈 때에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자기와 자기 집과 온 사람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가기까지 성소에 머물러 있으라 이스라엘 회중”(레 16:17). 이는 예수께서 정해진 때에 하늘 성소에서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거기에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 다니엘 8:14 “이천삼백 저녁과 아침이 되어서 성소가 정결하게 되어”라는 말씀은 이것을 가리킨다. 두 번째로 이 땅에 돌아오시기 직전에 성소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이 수행될 것입니다. 1844년, 예수께서는 하늘 성소의 지성소에 들어가 정결케 하는 일을 시작하실 것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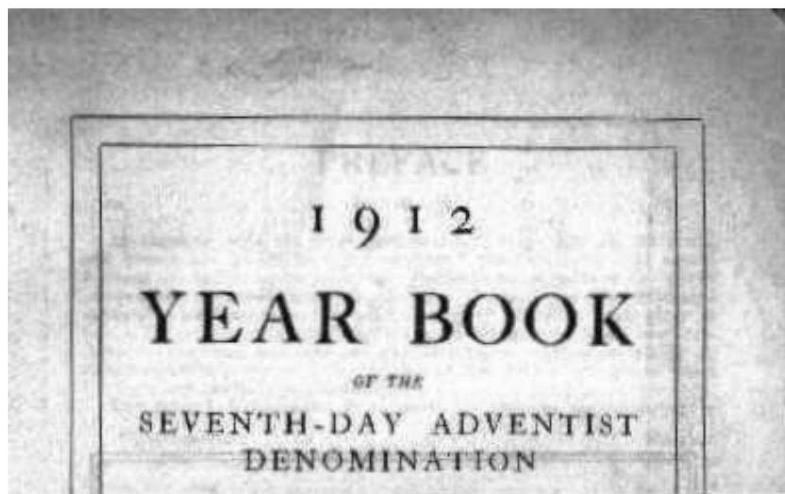
재림교인들은 예언에 나타난 때를 정확하게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실수를 했어 이벤트. 예수님은 예상했던 대로 이 땅에 오시지 않고, 하늘 성소 중 지성소로 들어가실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재림교회 운동은 그분의 백성을 흔들고 세상을 분리시키려는 신성한 목적을 성취했습니다. 이 세상을 가장 사랑하는 이들의 재림을 준비하고 싶었던 사람. 후 실망스럽습니다. 신자라고 공언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조차 탈북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충실함을 유지했으며 곧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깨닫고 더 많은 빛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성경의 진리인 “곡물과 쟁쟁이”를 분리하는 일을 그들을 인도한 성경으로부터 그들이 나온 회중들 안에 여전히 숨어 있던 거짓 교리들에 대해 말입니다. 이 매트 위에서, 성경 연구는 수세기 전에 루터가 시작한 교리 개혁 작업을 완성했습니다.

두 가지 본질적인 진리를 회복함: 유일신교와 토요일을 공휴일로 지키는 것
나머지.

1844년에 예수님이 건너셨던 지성소의 문을 언급하면서 조금씩
실망 후에도 신실한 남은 자들, 계시록의 예언은
필라델피아에 보낸 편지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나오는 재림교회 운동이 있습니다.
건설;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느니라. 힘이 거의 없고,
너는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느니라”(계 3:8).

1863년에 재림교인들은 공식적으로 다음과 같은 교단을 조직했습니다.
메시지의 특징적인 표시와 관련하여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함과 안식일인 주의 일곱째 날이 주의 날임을 전파하며
넷째 계명에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라. 그들은 또한 오직 한 분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를 믿었습니다.
특히 그들은 사도시대 이래로 가려져 있던 진리를 회복시켰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라”(고전 8:6).

재림교인들은 수십 년 동안 받은 빛에 충실했습니다.
그러나 선구자들의 죽음 이후 숨은 보물처럼 진리를 찾아 나선 이들은
다음 세대는 충성을 버렸습니다. 그들은 유일신교를 버리고 복종했습니다.
영적으로 거짓 교리, 즉 삼위일체에 사로잡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전환 프레임워크
1931년 교단 연감에 발표된 신앙 선언문이 그 증거이다.
책은 유일신에 대한 믿음을 지적했습니다. 그해에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문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912년과 1931년의 신앙 선언을 담고 있으며, 신앙 사이의 대조를 보여줍니다.
원본과 변경된 것:



FUNDAMENTAL PRINCIPLES OF SEVENTH-DAY ADVENTISTS.

By the late Uriah Smith.

Seventh-day Adventists have no creed but the Bible; but they hold to certain well-defined points of faith, for which they feel prepared to give a reason "to every man that asketh" them. The following propositions may be taken as a summary of the principal features of their religious faith, upon which there is, so far as is known, entire unanimity throughout the body. They believe:—

1. That there is one God, a personal, spiritual being, the Creator of all things, omnipotent, omniscient, and eternal; infinite in wisdom, holiness, justice, goodness; truth, and mercy; unchangeable, and everywhere present by his representative, the Holy Spirit. Ps. 139: 7.
2. That there is one Lord Jesus Christ, the Son of the Eternal Father, the one by whom he created all things, and by whom they do consist; that he took on him the nature of the seed of Abraham for the redemption of our fallen race; that he dwelt among men, full of grace and truth, lived our example, died our sacrifice, was raised for our justification, ascended on high to be our only mediator in the sanctuary in heaven, where through the merits of his shed blood, he secures the pardon and forgiveness of the sins of all those who persistently come to him; and as the closing portion of his work as priest, before he takes his throne as king, he will make the great atonement for the sins of all such, and their sins will then be blotted out (Acts 3: 19) and borne away from the sanctuary, as shown in the service of the Levitical priesthood, which foreshadowed and prefigured the ministry of our Lord in heaven. See Leviticus 16; Heb. 8: 4, 5; 9: 6, 7.
3. That the Holy Scriptures of the Old and New Testaments were given by inspiration of God, contain a full revelation of his will to man, and are the only infallible rule of faith and practise.
4. That baptism is an ordinance of the Christian church, to follow

번역:

"1. 하나님, 인격, 영적인 존재, 만물의 창조자, 전능하신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전지하고 영원하다; 지혜와 거룩함과 공의와 선함과 진실과 자비가 무한하며

불변하며, 그분의 대표자인 성령을 통해 어느 곳이나 현존하십니다. 시편 139:7

2. 영원하신 아버지의 아들 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이시며, 그를 통해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것들, 그리고 그것들이 존재하는 것..."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의 기본 원리 - 연감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단 - 1912년

1931년에 믿음이 바뀌었고 "삼위일체"가 그들의 집단에 도입되었습니다.

1931

YEAR BOOK

OF THE

SEVENTH-DAY ADVENTIST DENOMINATION

Comprising a Complete Directory of
the General Conference, all Union
and Local Conferences, Mission Fields,
Educational Institutions, Publishing
Houses, Periodicals, and Sanitariums.

PREPARED BY
H. E. ROGERS, *Statistical Secretary of
the General Conference.*

PUBLISHED BY
REVIEW AND HERALD PUBLISHING ASSOCIATION
WASHINGTON, D. C.

Printed in the U. S. A.

GENERAL CONFERENCE LIBRARY

FUNDAMENTAL BELIEFS OF SEVENTH-DAY ADVENTISTS

Seventh-day Adventists hold certain fundamental beliefs, the principal features of which, together with a portion of the scriptural references upon which they are based, may be summarized as follows:

1. That the Holy Scriptures of the Old and New Testaments were given by inspiration of God, contain an all-sufficient revelation of His will to men, and are the only unerring rule of faith and practice. 2 Tim. 3:16-17.

2. That the Godhead, or Trinity, consists of the Eternal Father, a personal, spiritual Being, omnipotent, omnipresent, omniscient, infinite in wisdom and love; the Lord Jesus Christ, the Son of the Eternal Father, through whom all things were created and through whom the salvation of the redeemed hosts will be accomplished; the Holy Spirit, the third person of the Godhead, the great regenerating power in the work of redemption. Matt. 28:19.

3. That Jesus Christ is very God, being of the same nature and essence as the Eternal Father. While retaining His divine nature He took upon Himself the nature of the human family, lived on the earth as a man, exemplified in His life as our Example the principles of righteousness, attested His relationship to God by many mighty miracles, died for our sins on the cross, was raised from the dead, and ascended to the Father, where He ever lives to make intercession for us. John 1:1, 14; Heb. 2:9-18; 8:1, 2; 4:14-16; 7:25.

4. That every person in order to obtain salvation must experience the new birth; that this comprises an entire transformation of life and character by the recreative power of God through faith in the Lord Jesus Christ. John 3:16; Matt. 18:3; Acts 2:37-39.

5. That baptism is an ordinance of the Christian church and should follow repentance and forgiveness of sins. By its observance faith is shown in the death, burial, and resurrection of Christ. That the proper form of baptism is by immersion. Rom. 6:1-6; Acts 16:30-33.

6. That the will of God as it relates to moral conduct is comprehended in His law of ten commandments; that these are great moral, unchangeable precepts, binding upon all men, in every age. Ex. 20:1-17.

7. That the fourth commandment of this unchangeable law requires the observance of the seventh day Sabbath. This holy institution is at the same time a memorial of creation and a sign of sanctification, a sign of the believer's rest from his own works of sin, and his entrance into the rest of soul which Jesus promises to those who come to Him. Gen. 2:1-3; Ex. 20:8-11; 31:12-17; Heb. 4:1-10.

8. That the law of ten commandments points out sin, the penalty of which is death. The law can not save the transgressor from his sin, nor impart power to keep him from sinning. In infinite love and mercy,

1931년:

"둘. 신회, 즉 삼위일체는 인격적이고 영적이며 전능하신 영원하신 아버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편재하시고, 전지하시고, 지혜와 사랑이 무한하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아들 영원하신 이로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구속된 만군의 구원이 이루어지느니라 그것은 완성될 것이다; 성령은 신성의 제3위이시며 거듭나게 하시는 위대한 능력이다. 구원의 사역. 마태복음 28:19."

다시 한 번, 수세기에 걸친 하나님의 금실 이야기 속에서 한때 신실했던 교회는 그는 배교했습니다. 더 이상 참된 교회의 특성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통해 미래에 신실하신 분이 나타나실 것을 알려 주셨습니다. 다시 진실을 복원하겠습니다. 그 과정은 다르지 않을 것이다: 빛의 도래, 내부 분열 그것을 포용하는 자와 그것을 거부하는 자 사이의 외적 단절과 새로운 것의 출현 교회.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지만, 이 모든 것은 예언에 명시된 때에 이루어집니다.

제5장

셋째천년기의 예언의 교회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는 여러 면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재현했다. 오래된. 첫째, 그것은 그 기원에서 동일한 독특한 교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일신교와 안식일 준수. 특히 참고자료로 눈에 띄더군요. 일곱째 날의 준수.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많은 회원을 보유한 안식일 공동체입니다. 심지어 유대인을 능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동일한 성취로 표시됩니다 과거 유대인들에게 적용되었던 예언.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70년의 세월이다. 바벨론 포로. 이는 그의 독특한 초기 신념 중 또 하나인 존재와 관련이 있습니다. 한 분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

과거로 돌아가 보면, 유대인들은 유일신론자였습니다. 즉 그들은 단 한 분의 존재를 믿었습니다. 하나님, 한 분, 아버지 모세가 기록하기를 이스라엘에게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유일한 분이시니라 여호와여”(신명기 6:4). 그들의 배도 때문에 그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가신들은 이교 신을 믿는 바빌론의 종교를 고백하도록 강요 받았습니다. 삼위 일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을 봉헌할 때 나타난 종교적 편협함의 예는 주목할 만합니다. 그는 다니엘의 유대인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는 고의로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내가 세운 금신상이냐?... 절하지 아니하면 당장 아궁이에 던져지리라 타는 불로”(단 3:14, 15).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바에 따르면, 포로 기간은 70년 동안 지속될 것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회복할 권한이 있습니다.

칼을 피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그들이 그때까지 그의 종과 아들이 되었느니라
페르시아 왕국에서... 칠십 년이 차기까지. 그러나 고레스왕 원년에
바사여호와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여 이르되
또 글로 써서 이르기를 바사 왕 고레스가 말하노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에게 명하셨고 너희 중에 누가 누구냐
그의 백성은 올라갈지어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대하 36:20-23).

간단히 말해서, 유대인들은 70년 동안 신을 숭배하는 자들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이교도 삼위일체. 그 후 고레스의 칙령에 따라 해방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신명기 6:4; 고전 8:6). 지나가면서 말하자면,
소수만이 돌아왔습니다. 대부분은 이미 바빌론에 정착하여 정착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떠나다. 많은 사람들이 남아 있다는 증거는 또 다른 유대인 물결이 이곳으로 이주했다는 사실입니다.
수년 후, 아닥사스다의 명령에 따라 예루살렘이 통치함(에스라 7장 참조)

성서는 우리에게 과거와 미래 사이의 유사점을 찾아볼 수 있는 확신을 줍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이 쓰여 있습니다: “
그것은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일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아래에는 새로운 것이 아무것도 없도록
해.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보세요, 이것은 새로운 것입니까? 이미 지난 세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앞에.” (전도 1:9, 10) 안식일을 지키는 백성들이 70년간의 포로생활을 완수함
과거(유대인)도 현재의 안식일 준수자들(제7재림교인)도 그랬을 것이다.

낮). 우리는 앞 장에서 재림교인들이 유일신교를 버리고

1931년 공식 문서에는 삼위일체 신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동일한 신앙을 받아들였습니다.

과거에 유대인들이 속박되었던 바벨론. 그 이후부터라는 말이 사실이다.

재림교인들은 영적으로 “바벨론 포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70년 후

2001년(1931 + 70 = 2001)으로 이어집니다.

교단의 역사를 아는 사람이라면 올해 대규모 반란이 있었다는 것을 알 것이다.

교회 회원 내에서, 세계 여러 지역에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그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 참하느님을 숭배하는 곳으로 돌아오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있었다,

첫째, 삼위일체의 포로들과 자유를 추구하는 자들 사이의 내부 분열이다.

참된 예배. 이는 짧은 시간에 분리로 발전하여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것은 반삼위일체론자들을 그 가운데에서 배제했거나 경우에 따라 그들이 자발적으로 떠났습니다.

두 민족이 탄생했습니다. 대다수는 교단에 남아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바벨론에서는 삼위일체를 숭배하는 것과 소수를 숭배하며 수많은 작은 사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모두

“아버지 한 하나님”(고전 8:6)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우리가 참된 교회의 변화에 직면해 있음이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진리로 돌아오기를 거부하고 그것을 받아들인 다른 종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등장한 많은 사역 가운데 예배의 깃발을 들고 있는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께, 참되신 분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특성을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는 것 외에도 참된 교회의 것입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이전에는 “예언의 영”, 즉 다니엘의 예언에 대한 빛을 갖고 있었습니다. 계시록(계시록 12:17; 19:10); 그리고 그 출현은 성경적 예언에 의해 나타나 있습니다(겔 21:25-27).

선지자 다니엘은 마지막 때에 관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의 말로는 "아니요. 바사 왕 고레스 제3년에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한 말씀이 나타나서 그만큼 그 말은 사실이었고 큰 갈등을 수반했습니다. 그가 이 말을 깨닫고 깨달으니라 이상에 대하여”(단 10:1). 그리고 21일 뒤에 그는 가브리엘 천사를 보게 되었습니다(2-13절). 그 “나는 마지막 날에 당신의 백성에게 일어날 일을 당신에게 깨닫게 하려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상은 여러 날 동안 있으리라”(단 10:14).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정해진 칠십 이레가 끝나면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의 약속을 믿는 자들로 구성되기 시작했습니다. 폴 “겔으로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으로 유대인이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니라. 고기.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 곧 영에 있느니라.” "모두는 아니다 이스라엘 출신은 이스라엘 사람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자녀인 것은 아닙니다.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후손”(롬 2:28, 29; 9:6-8). 그러므로 “마지막 날에 주의 백성”이라는 천사의 말은 그 당시의 참된 교회에 대한 분명한 언급입니다. 이를 식별하려면 필요합니다. 다니엘서의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라.

계시는 12장까지 계속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4절에서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세상 끝날까지 이 책을 봉함하라”(단 12:4). 폭로가 말해주는 것 마지막 교회에 대한 존경심이 봉인되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에서 우리는 봉한 책이 퍼졌음을 본다. “또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우편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기록되고 봉하였으니 일곱 인으로... 또 내가 보니 보좌 가운데에 어린양이 있고... 나아와 책을 가지시니라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나오리라.” “그리고 어린 양이 인 중 하나를 떼실 때에 내가 보니, 나는 네 동물 중 하나가 천둥 같은 소리로 “와서 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보니 말 한 마리가 있더라 하얀색; 그 위에 탄 사람은 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왕관을 받았고,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기게 하느니라”(계 5:1-7; 6:1, 2). “말”은 교회의 상징으로 사용됩니다.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스도가 이끄는 말에 비유하시며, 가나안을 향하여 광야에서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여호와의 많은 찬송을 말하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따라 이스라엘 집에 큰 은혜를 베푸시리니... 그가 말했다: 진실로 그들은 내 백성이요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는 자녀들이니라. 그리하여 그분은 그들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 안에 그들의 모든 환난에 괴로워하시고 자기 앞의 사자가 그들을 구원하시니라... 모세와 그의 백성에 대하여 이르되 그들을 바다에서 인도하여 낸 이가 이제 어디 있느냐

너희 양 떼의 목자들이나? 사막의 말처럼 그들을 심연으로 인도하신 분,
누가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이사야 63:7-13)

목시룩의 말은 흰색으로 순결을 상징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비록
너희 죄가 주홍 같겠고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사 1:18). 당신의
기사는 이 교회를 인도하시는 그리스도를 분명히 상징하는 흰색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졌다
또한 "호". 전쟁에 사용되는 무기 중 하나로 전투, 싸움을 상징합니다. 야곱이 말했습니다.
요셉: 내가 나와 함께 빼앗은 땅을 네 형들보다 더 많이 네게 주었노니
칼과 나의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얻은 것이니라”(창 48:22). 상징인 왕관이 있었어요
승리의. 주님께서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계 2:10)고 말씀하십니다.

즉, 다니엘의 예언서의 봉인이 열리자마자 요한이 보니
그리스도께서 친히 인도하시는 순수한 교회로서 영적 투쟁 속에서도 여러 가지를 얻었습니다.
승리. 언제 나타나야 합니까? 이를 알기 위해서는 역사적 맥락을 분석해야 한다.
다니엘이 현대 예언의 역사에서 언제 재현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니엘은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난 지 2년 만에 천사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바빌로니아 사람. 그의 통치 첫해에 키루스는 포로 생활을 끝내는 법령을 발표했습니다.
바사 왕 고레스 원년... 여호와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전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사 그 곳에 집을 건축하라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너희 백성 중 누구든지 올라가라”(대하 36:22,
23). 다니엘은 “고레스 왕 제삼년”에 환상을 보았습니다(단 10:3). 그리고 그 방문을 받았을 때였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그가 내게 이르되 사랑하는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네 발로 일어서라 나는 너희에게 보내심을 받았노라...
마지막 날에 주의 백성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리이다”(단 10:14).

현대에 재림교인들은 영적으로 바벨론 포로 생활에 복종하여
1931년부터 유일신에 대한 신앙을 버리고 삼위일체를 받아들인 것이다. 칠십년
이후 2001년에 포로 생활이 끝나자 많은 이들이 일어나 귀국했다.
포로로 잡혀간 지 2년 후인 2003년(2001 + 2 = 2003)입니다.
현대로 볼 때, 이 해는 천사가 다니엘을 방문한 해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는 말했다
이는 “마지막 날에 너희 백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밝혀 줄 것입니다.

첫째 인에 예언이 드러날 때, 우리는 순수한 교회의 출현을 봅니다.
'참된 교회'의 지위를 상속받을 기사로 대표되는 예수
지구상에 있는 신의 “황금 실”에 대한 연속성.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2003년 순수교회.
2001년 이후로 참된 예배와 계명에 대한 순종이 구체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날짜가 표시됩니다. 2003년 12월에 주님은 자신의 메시지를 전하는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알레한드로 형제는 이미 설명한 이유로 재림교회에서 제외된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름이 언급된 다섯 형제와 함께 사역을 조직해야 합니다

- 알파벳 순서: "Alejandro, Fábio, Jairo, Luiz 및 Rogério". 사역은 다음과 같이 설립되었습니다.

이름은 "4천사사역"입니다.

이 시점에서 이 교회가 초기에 다음과 같이 표현되었다는 사실을 언급할 가치가 있습니다.

백마는 그 구성원이나 지도자에게 결점이 없거나 면역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들. 그들은 땅의 모든 시대에 주님께서 택하신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죄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야곱, 다윗, 베드로, 바울 및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자신의 실패를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백마의 순수함은 멤버들에게 흠이 없다는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오직 그리스도의 의만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으십시오. 의 텍스트

스가라는 회개하고 믿는 죄인에게 흰옷을 수여하는 주님의 사역을 보여줍니다.

"또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사단을 내게 보이시니라"

그의 우편에서 그를 대적하는 자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사탄아, 그렇다. 예루살렘을 택하신 주님께서 너를 꾸짖으시다. 이것은 불 속에서 꺼낸 낙인이 아니냐?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자기 앞에 있던 사람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말하기를: 이 더러운 옷을 벗어라.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네 죄악을 제하여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속 3:3, 4).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사역의 열매일 뿐입니다.

흰옷의 상징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는 그 자체에 의가 없습니다. 바울은 거절의 이유를 언급합니다.

참된 교회로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구하는" 사실을

자기 의를 세우되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롬 10:3). 정의의

하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교회의 존재 이유이시며 머리이십니다. 교회는 그분의 몸이다(엡 1:22, 23).

그분 외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임재만이 교회를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한,

우리는 현대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사역은 참된 교회의 또 다른 특징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니엘과 계시록의 예언의 계시에 대한 빛을 그리스도로부터 받음". 선포하는 것 외에도

사람들은 거짓 믿음(삼위일체)을 버리고 참된 예배로 돌아가야 합니다.

일부 예언, 특히 다니엘의 1260일, 1290일, 1335일의 성취를 발표했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가 요한계시록 17장의 짐승으로 세상에 나타난 것은 마지막 예언이다.

로마 교황. 이와 관련하여 재림교회에서 유래한 다른 모든 사역 가운데,

2001년부터 미래의 성취에 대해 일관된 설명을 제시한 유일한 것입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여러 예언. 다른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전통적 비전을 유지했습니다.

한 세기가 넘도록 재림교회에서 이 책에 나오는 거의 모든 예언이

과거에 단지 몇 줄의 동일한 내용으로 완전한 성취를 찾았습니다.

미래의 사건을 가리킨다.

그리하여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참된 교회의 새로운 단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백마에 나타난 투쟁과 승리의 경험은 문자 그대로 의성원들에게 성취되었다. 내각. 사탄은 분열과 배도의 영을 들여오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했습니다. 영형 내각은 많은 사상자를 냈지만 대부분의 지도부는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서 그녀는 계속 서 있었습니다. 천사가 임명한 사람 중 한 사람이 그 일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가 다른 장소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속적인 흔들림의 결과로 적의 공격으로 부추겨 관리위원회에 여러 이름이 연달아 오르다가 결국 추락했다. 이후: Gilmar, Neimar, José, Evandro, Rafael, Jaime, Bruno, Lucas 및 Jefferson. 예상되는 것은 넘어진 사람도 여전히 회개하고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교회에 관한 다니엘의 예언의 계시는 그렇지 않았다. 완성된. 첫째 인을 떼신 후에 하나님의 어린양이신 그리스도께서 둘째 인을 떼셨습니다. 시작 했어 다음은 교회의 또 다른 장입니다. 한편으로는 이것은 훨씬 더 슬픈 장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실도 드러났다.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한 전망을 가져오는 새로운 것의 선구자입니다. 아래에서 볼 수 있듯이.

제6장

새로운 예언교회의 흔들림과 출현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짐승이 말하되 와서 보라 하더라.” 그리고 또 하나 나왔는데 붉은 말; 그 위에 탄 자가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를 죽여라; 그리고 그는 큰 칼을 받았습니다.” (계시록 6:3, 4). 대조적으로 첫 번째 인에서는 말의 흰색이요, 두 번째 인에서는 교회가 붉은색으로 표현됩니다. 이것은 죄의 상징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죄가 붉을지라도... 붉게 물들면 흰 양털처럼 될 것이다”(사 1:18). 예언은 타락을 예언했다 영적 - 흰색에서 빨간색으로. 그러므로 기사로 대표되는 예수께서는 이별을 조장할 것이다. “땅에서 화평을 제하는 일을 맡으신 이에게 허락되었느니라.” 이 단어의 의미는 누가복음의 본문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오히려 불화라. 이제부터 다섯 집이 한 집으로 나누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2 대 3, 2 대 3입니다.” (누가복음 12:51, 52) 의미가 가득한 텍스트의 단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의 서술에서 알 수 있듯이.

사역이 창설된 지 약 5년 후인 2008년 6월부터 7월 사이에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몇 년 후 부서를 결정하는 초기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중 하나
위원회 회원들은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니 아버지이시니라”라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관계대로 그는 그것을 심의를 위해 위원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기다렸습니다.
출판을 계속하세요. 제안서 제출은 위원회에서 부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자료가 저자의 이름 없이 하나 또는 다른 이름으로 출판되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주장 - 오늘날 이는 질투로 인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당시에는
저자는 부가된 제안을 수락하고 최종 의견을 기다렸습니다. 18개월이 지난 후에도 나는 여전히
위원회로부터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 사건을 위원회의 다른 위원에게 보고한 것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명백한 미루기와 악의를 보고 저자를 지지한 알레한드로
위원회의 승인 없이도 인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인상을 주지 않으려면
위원회의 다른 구성원을 고려하지 않고 주도적으로 책을 인쇄했습니다.
작가 이름. 당시 저자는 “O Oitavo”라는 책을 완성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인지 본 결과
이전 제목의 작업이 의뢰되었으므로 그는 그의 형제 Alejandro와 함께 제목 없이 출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위원회의 승인.

“그러나 우리에게는 오직 한 하나님, 아버지뿐이시니라”와 “여덟째”라는 두 가지 제목이 붙었습니다.
동시에 출판되었으며 2008년 6월에 준비되었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계획을 지지한 위원회 위원 - 저자인 Jairo와 Alejandro. 그들이 알았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위원회의 다른 세 위원은 그러한 자료가 "해당 자료에 속하지 않는다"고 선언했습니다.
그것은 저자의 개인적인 주도였기 때문에”, 사실에 대한 그들의 버전을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렸습니다.
이는 위원회를 "3 대 2"로 나누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정확히 어떻게
누가복음 12장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예언은 성취되었습니다.

같은 장 앞부분의 몇 구절에서 예수께서는 문제의 성격을 언급하셨습니다.
분할을 결정하게 됩니다. 두 그룹이 언급되는데, 하나는 메시지 전달을 담당하거나,
“제때에 배급을 주라”와 비판하는 일을 하는 또 하나는 “주께서 이르시되 이것이 무엇이고?”
이는 충실하고 지혜 있는 청지기에게 맡겨서 주인이 그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주게 하심이니
부분?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도다. ~ 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그에게 그의 모든 소유를 맡기리라 그러나 그 종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한다면,
내 주께서 늦게 오시나이다. 남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며
술에 취하면 생각지도 않은 날 생각하지 않은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올 것이다.
알고 그를 구별하여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그에게 몫을 주리라.” (누가복음 12:42-46) 비판은 다음과 같이 설명됩니다.
“하인을 때린다”는 표현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차이점은 주먹 대신 혀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리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들은 “먹고,
마시고 취하라.” 먹고 마시는 것은 문자 그대로의 의미인 반면, “취하다”는 것은 취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drink" 바로 뒤에 "drink"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같은 생각을 전달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두 가지 일 모두 스플린터 파티에서 일어났습니다. 대부분을 차지한 분들은
위원회는 식단에 관한 성경적 지침에서 점차 멀어졌습니다. 그것에서 이다
그 이후로 그들은 영적인 의미에서 위임장에 제출된 진리를 거부해 왔습니다.
"술 취함"으로 번역됩니다. 성경에서 깨끗한 물은 참된 교리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분별력을 왜곡시키는 술은 거짓 가르침을 상징합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주는 물이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니라"(요한복음 4:14). 그리고 거짓 교회의 가르침에 관해서는,
목시룩의 바벨론은 다음과 같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만국에 대하여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였느니라"(계 14:8).

이야기로 돌아가서: 위원회는 그림에 예시된 대로 3개 대 2개로 나누어졌습니다.
둘째 인(땅에서 평화를 취함), 누가복음 12장. 두 사람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일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새 책을 통해 "제때에 양식"을 주고, 세 사람은 일에 참여했습니다.
비판하는 일. 그때부터 두 책의 저자는 새로운 빛을 가져왔다.
연속으로 거절당합니다.

얼마 후, 그 책의 저자는 다음을 찾아 미국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주제에 대해 밝혀 주는 것으로 알려진 연구를 얻으십시오. 그것은 ~에 대하여
당시 94세였던 Robert J. Wieland 목사와 그의 동료들이 제작한 자료. 그들은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에게 제시된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의 메시지에 관한 연구
미니애폴리스에서 열린 총회라고 불리는 글로벌 회의 중 하나에서,
1888년 미네소타. 메신저는 교단의 두 목사인 Alonso T. Jones와 Ellet이었습니다.
J. 왜고너. 첫 번째는 역사 교사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의사. 그것의 작은 때문에
당시 나이(각각 37세와 33세)로 인해 그의 메시지는 거부되었습니다.
엘렌 G. 화잇과 몇몇 사람들을 제외한 이 운동의 선구자들인 장로들에 의해
목자들. 결과적으로 메시지는 묻혔습니다.

메시지가 담긴 목회자들의 책들은 망각 속으로 버려졌습니다.
Robert Wieland 목사와 그의 동료 Donald K. Short의 노력이 다시 주제가 되었습니다.
관심. 이 두 목회자는 교단의 총회에 다음과 같은 제목의 서류를 전달했습니다.
1888 Re-Examined (1888 재검토), 여기서 그들은 메시지에 대한 거부를 지적했습니다.
Ellen G. White가 지적한 대로 조직의 리더십을 설명하고 조직의 핵심 주제를 설명했습니다.
같은. 비록 목적은 아니었지만 자료는 평신도들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의해 그것은 세계 여러 지역으로 전파되고, 번역되고, 전파되었습니다. 빛은 할 수 없었다
막하다.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Wieland 목사와 Short 목사는 지도부의 면밀한 조사 대상이었습니다.

선동적인지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 일단 충성을 다하면

조직에서는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소문의 표적이 되었고,

교단 내의 가려진 박해. 시간이 지나면서 몇몇 회원들은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빛을 받아들였고, 그들과 합류하여 1888이라는 그룹을 결성했습니다.

빛을 퍼뜨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위원회. 친구들의 지원으로 Wieland 목사는 23편의 글을 썼습니다.

메시지에 관한 책 중 마지막 책은 "거의 멍청이들을 위한 1888"입니다.

바보), 저자가 그의 집을 방문하기 직전에 출판되었습니다.

방문 동안 저자는 몇 가지 의혹을 해소하고 많은 자료를 획득했습니다. 그것들을 읽고

받은 빛으로 4천사사역의 다른 형제들을 축복할 수 있도록 가져왔습니다. 돌아올 때

여행하면서 그는 메시지를 설명하는 일련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빛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도. 3인 중 반체제 정당의 영향력이 가장 큰 사람은 이를 거부했다. †

메시지는 사람이 거듭날 때에만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오래된 것들은 지나갔습니다. 보다

모든 것이 새로워졌다”(고후 5:17). “어린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은 정의롭고,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요일 3:7). 그러나 그것을 거부한 사람은 그 사람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마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선언하셨을 때 의롭게 되었습니다. 어느

인간의 경험이 성장함에 따라 나중에 올 수도 있습니다. 거절과 그

이어지는 설교에서 양측의 대조로 느껴지는 반성은 마음을 더욱 깊게 했습니다.

분할.

또 다른 사실도 분열을 초래했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입증했습니다.

그리스도. 책의 저자는 산 자의 심판이 시작될 것에 관한 빛을 받았습니다. 이 빛을 기반으로

아닥사스다가 “왕들”이라는 제목을 붙인 에스라 7장 이야기와 예언적으로 평행을 이룬다.

왕들에게 이르노라' 하고 제사장 에스라에게 명령하여 유대인에 대하여 조사하게 하였으니

그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든 아니하든지 규례대로 그들에게 형을 내리셨느니라 시나리오는 무엇을 미리 보여줬는가

산 자의 심판이 시작될 때,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참된 심판이 시작될 때 일어날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는 지구상의 살아있는 세대의 사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메시지

오늘날 우리가 볼 때 에스라 7장은 이 책의 부록에 전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의 가르침은 다른 구절에도 암시되어 있습니다. 사역은

우상숭배(삼위일체 신앙)를 버리고 본래의 것으로 돌아갈 필요성을 선포하기 위해 제기되었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라(고전 8:6; 요 17:3). 이런 의미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전달했다.

요한계시록 14장의 첫째 천사가 전한 메시지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는 다른 천사가 바다 위로 날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늘 가운데 계시고 땅에 거하는 자들과 만민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느니라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이 큰 소리로 이르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니 왜냐하면

그분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계시록 14:6, 7) “...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는 동일한 메시지가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즉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도다”입니다. 수사재판은 1844년에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후와 오전 2300을 준수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죽은 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이 땅에 살아 있는 마지막 세대는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인간과 인간을 위한 중보를 그치시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문은 닫혀 있다”. 그러므로 이제 남은 발표는 더 이상 죽은 자의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 오래전에 시작되었지만 오히려 살아있는 자의 심판의 시작이다. 메시지에 담겨있습니다 첫째 천사의.

2001년 재림교회의 삼위일체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백성, 모든 사람에게 참 송배로 돌아오도록 촉구했을 뿐만 아니라, 산 자에 대한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에 눈을 뜨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여전히 나는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위원회 위원 중 한 명이 이를 지도부에게 제출했을 때 사역 4명의 천사, 대다수를 구성하는 3명의 천사가 그것을 거부하고 그 유통을 막았습니다. † 이때까지 그것은 이미 여러 곳에서 전파되었고 그 열매는 그것이 신성한 자격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교회를 버리고 죄를 버리고 사역에 참여하자 새로운 회중이 형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유통이 중단됐고, '위원회의 승인'을 받기 전에 전파됐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자의 자존심과 독립정신의 결과로 비난받았다. 그의 동료 위원들.

얼마 지나지 않아 저자는 감동을 받아 이번에도 같은 진리를 제시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근거하여 그는 “해를 옷 입고... 수고하는 여자”를 지적했습니다. 해산하기를 원하며”(계시록 12:1-3)는 지상에 사는 자의 교회를 대표하며, 산 자의 심판 때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죄에 대하여 승리를 간구하되 반면 “큰 붉은 용”인 사탄은 “여자 앞에 서서” 그녀를 대적했습니다(계 1:1). 12:3, 4). 그 장면이 산 자의 심판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은 나중에 나오는 구절들을 읽으면 이해된다. 그 후에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났다고 하며, 그 주민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능력이니라 왜냐하면 고소인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참소하던 우리 형제들이 멸망하였나이다”(계시록 11:1) 12:10). 조사심판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검토하시는 동안, 사탄은 자신을 고발자로 삼아 우리를 대적합니다. 그가 추방되었을 때 천사들은 그때까지 그가 그의 형제인 우리를 비난했습니다. 다니엘 8장 10절에서는 교회를 “하늘의 군대”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천사들은 그들은 우리를 형제로 여겼습니다.

오늘은 분명해 보이지만 당시에는 세 멤버가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커미션은 당시 대다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설교도 막혔습니다. 그것은 통합하고 있었다 세 사람 사이에 하늘이 연속적으로 보내는 빛을 거부하는 자세. 사역은 빛을 전달하는 자와 거부자의 두 가지로 나뉩니다.

요한계시록의 교회들의 예언

이 시점에서, 어느 누구도 밝혀지지 않은 몇 가지 사실을 제시할 가치가 있습니다.

4천사사역에 참여하신 분들, 특히 본교회에 참석하신 분들입니다.

이 메시지는 지도자들에 의해 반복적으로 전파되었으며, 사천사 사역을 적용한 묵시록의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독자의 유익을 위해 요한계시록 학자들은 예언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일곱 교회 중

일곱 개의 봉인. 다르게 말하면 둘 다 같은 것을 묘사합니다. 공개된 내용에 정보를 추가합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듯이, 각각의 인이 열릴 때마다 교회의 상태가 제시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일곱 교회”라는 이름을 지닌 예언에 가장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메시지가

교회는 첫 번째 봉인에 표현된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첫째 인에서 교회는 “승리하고 승리한 백마”로 표현되었습니다.

이기려고”(계 6:2). 이 경험은 초대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그녀에게 보낸 메시지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너희의 인내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또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과 그렇지 아니한 자들을 시험하시는도다

그들은 거짓말쟁이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고난을 겪었고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내 이름을 위해 일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피곤하였도다...”(계시록 2:1-3). 다양한 전투에서 광신주의, 배도, 반대에 직면

재림교회의 개방성과 박해 속에서도 그때까지 목회는 재림교회의 눈에 승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을 책망할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기억하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지 않으면 곧 당신에게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계 2:4, 5). 첫 번째

부분이 완전히 준수되었으므로 사역에 대한 경고 적용이 완벽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4 천사. 이 메시지는 특히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서문에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천사는... 기록합니다.” 그리고 천사는 복음을 설교하거나 가르치는 사람을 나타냅니다. 사도 바울

갈라디아 신자들이 그를 “하나님의 사자”로 영접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갈 4:14). 의 톤

경고는 “첫 번째 일을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속히 네게 가서 너를 네 자리에서 옮기리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버리리라.”

비판의 정신, 누구라도 새로운 빛을 받아들이는 겸손

운반 도구는 사역의 역사 초기에 존재했던 특징이었지만, 만약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손실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언급하신 “촛대”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그 당시 등불은 기름을 담은 횃불이나 촛대가 밤을 밝혀 주었기 때문입니다.

등심. 그 영적 의미는 성서에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내 발을 위한 등불입니다.

말씀이요 내 길에 빛이니라”(시편 119:105).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경고를 이해합니다.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거부하는 입장을 취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의 의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본 것처럼 교육부는 하나님의 모든 참된 교회와 마찬가지로 독특한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이제는 이 세대를 위한 시간입니다. 다른 어떤 종교에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촛대 상징은 단순히 성경의 일반적인 가르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계 전체 또는 대부분이 인정합니다. 진실을 상징합니다. 현재로서는 고대 교리를 뒤집지 않는 추가 조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러나 그것들을 더욱 밝게 빛나게 하여라. 그리고 또한 성경 예언에 대한 추가 조명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교회는 항상 예언의 교회이고, 그것이 그들에게 빛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해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촛대를 제거하는 것은 이 시간을 위한 특별한 빛을 거부하는 것과 일치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난 것입니다.

이 장에서 간략하게 설명된 이야기는 여기에 노출된 내용에 대한 증거의 무게만을 제공합니다. † 대부분의 지도자들은 사역에 가져온 연속적인 빛을 거부했습니다 - 연대순으로: 에스라 7장의 연구에 기초한 산 자의 심판의 메시지; 같은 메시지가 다시 표시됨 요한계시록 12장을 공부함으로써; 그리고 1888년에 주어진 메시지에 비추어 믿음으로 의롭게 됨 존스 목사와 왜그너 목사. 촛대 위의 등불처럼 타오르던 그들이 옆으로 밀려나더니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의 태도 때문이다. 그래서 촛대는 사라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에서 두 번째 교회에게 하신 말씀에 비추어 가장 잘 이해됩니다. 이제부터 살펴보겠지만 서머나(Smyrna).

에베소에 보낸 편지에 예언된 기간 이후에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기록하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임을 당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환난과 궁핍(그러나 너희는 부자라)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훼방과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 네가 겪게 될 일들 중 어느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얼마를 던져 네가 감옥에 갇힌 것은 시험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너희는 열흘 동안 환난을 겪게 될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고,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계시록 2:8-10)

우리는 둘째 인을 떼신 후에 계시된 대로, 한 가지 일이 있어야 함을 방금 보았습니다. 4천사사역의 분파. 서머나에게 보낸 편지는 소수의 신실한 지도자들이 그들은 사역 안에서 진리의 촛대를 휘두르면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의 천사에게"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그들은 가난을 통해 힘든 시련을 겪을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믿음이 부유한” 사람으로 여기실 것입니다. 너희의 일과 환난과 궁핍(그러나 너희는 부자나라)' 그들도 비방을 받고 가혹하게 대할 것이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드러났습니다. “나는 알거니와...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하는 말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니라”. 이 장에 묘사된 장면을 경험한 모든 사역자들은 그 재앙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의 현실. 그들은 그것이 사실이고 올바르게 적용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반영.

성서에서는 “두 사람이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함께 걸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알려 줍니다. (아모스 3:3).

사역을 방문하고 “불 눈”을 가진 사람들은 이미

계급이 단결되지 않았고 분열이 깊었습니다. 이미 진행 중이었던 이별

사역 내에서는 불가피한 일이었습니다. 여전히 진리와 진리의 깃발을 들고 있는 소수

그녀는 때때로 다른 사람들의 인식에 새로운 빛을 가져왔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가려진 방식으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럼 공개적으로. 목서록의 두 번째 봉인은 그 사건에서 직면했던 모든 것을 요약합니다.

비유적으로 이해되는 이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계 6:4).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에서 “둘이 셋으로” 나누는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예언된 대로,

2011년에 결렬이 일어났고, 진실을 지지하는 두 명의 위원회 위원과

그들은 빛 가운데 계속 있으려고 했으나, 어둠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아니

그들은 새로운 교회를 세우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곧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필요하다는 점을 감동시켜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작업을 진행하세요. 그러자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힘으로 힘을 얻어 일어나서

넷째 천사 사역 - 마지막 경고. 다시 한 번, 그동안 여러 번 일어났던 것처럼

역사 속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들은 빛 속에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서머나 교회에 보낸 예언의 말씀에서 우리는 몸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봅니다.

신실한 자에게는 주님께서 “내가 네 행위와 환난을 안다”고 하셨고 또 다른 하나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과 그렇지 아니하니 사단의 회당이니라.” 이는 전자를 비방하고 모독하는 자들입니다.

저자를 포함하여 중상과 고통을 받는 사람들에게 예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겪어야 할 일들. 보라, 마귀가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너희가 시험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계 2:10). 그는 증거의 정확성을 입증하면서 다음과 같이 덧붙였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색을 주리라.”

창세기 아래로 진리의 편에 선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직분을 나누므로 너희가 처한 바를 알거니와 이 말이 문자 그대로

당신의 경험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는 상황에 따른 감옥에 살고 있습니다. 열흘이라는 단어는

상징적 예언에서는 10년으로 이해됩니다(민 14:34 참조). 수년 동안 우리는

자산 강탈, 다양한 사업 프로젝트에서 사기, 경쟁에 직면

우리가 소유한 자산을 잃은 전직 사역 형제들에게도 불충실했습니다. 우리는 센다

이런 저런 이유로 성공하지 못한 수십 개의 프로젝트가 구상되었습니다. 다양한

사건들, 그 분야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본질적으로 초자연적이라고 인식한 몇몇 사건들

저자의 회사는 번영의 길에서 반복적으로 진전을 방해했습니다. 6월부터

2008 - 계산의 시작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면 2018년 6월까지 합산됩니다.

10년 동안 비방과 박해, 가려지고 공개적인 반대와 진보의 장애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악마가 운영하는.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기간을 마치고 참된 교회는
셋째 인의 때.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제7장 새로운 예언의 교회의 경험

“셋째 인을 떠날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와서 보라 하더라. 그리고 내가 보니, 보라.
검은 말이 있고 그 탄 자는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그리고 나는 안에서 목소리를 들었다.
네 마리 짐승 중에 한 데나리온에 밀 한되요 보리 석되라 하였더라
돈 때문에; 그리고 기름과 포도주에는 해를 끼치지 마십시오.” (계시록 6:5, 6) 다시 한 번 폭로
두 교회, 즉 어머니 교회와 남은 교회를 묘사합니다. 어머니(4천사 사역)를 대표함
첫 번째 인과 다른 색깔의 말들에 의해 연속적으로, 나머지는 (사역부)
네 번째 천사 - 마지막 경고), 환난에 직면한 소수로 구성됩니다.

"검은색" 말이 보입니다. 한때 하양고 순수했던 모교회는 그 순수함과 광채를 잃었습니다. 영형
성경에서 검은색은 죽은 자들에 대한 “슬픔”을 의미합니다.
내가 지옥에 내려가 거기에서 애곡하게 하였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심연을 덮었고 너희를 막았노라
시냇물이 흐르고 많은 물이 멈췄습니다.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레바논을 검게 뒤덮었고,
그로 말미암아 들의 나무가 시들었느니라”(겔 31:15). 기호는 다음에 적합합니다.
세상의 방식을 흡수하고 실천을 포기한 회원들의 사역을 대표합니다.
성경적 건강 개혁 및 교육과 관련된 몇 가지 진리에 대해
아이들의 성격 형성. 그러한 거절로 인한 피해가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많은 지도자와 회원들에 의해.

기사로 대표되는 그리스도는 손에 심판의 상징인 저울을 들고 있었습니다.
옴은 하느님의 심판에 호소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실한 저울로 나를 달아 보십시오. 그러면 하느님께서 내 저울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성실함이라”(옴 31:6). 우리 구주께서는 그 유산을 배반한 교회의 재판관으로 나타나십니다.
요한계시록이 다니엘서를 계시하는 것을 고려하면, 그리스도의 손에 있는 저울의 모습이
검은색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녀를 심판하시고 그녀의 왕국과 모든 것을 빼앗으시는 잘못을 선언하심을 상징합니다.
다른 사람에게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니엘서를 읽음으로써 다음과 같이 이해됩니다.
바벨론이 선포되었으니 그 해석은 이러하니라 메네 하나님은 왕의 나라를 세셨으니
그가 끝냈다. 테켈: 당신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드러났습니다. PERES: 분열된 것은 당신의 것이었습니다
나라를 메대와 바사에게 주었느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리우스는
두려워하여 왕국을 차지하였느니라”(단 5:27-31).

우리 시대에도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4천사사역의 무게를 달아서 발견한 동안 부족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그에게서 빼앗기고 빛을 따라가는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졌느니라: 네 번째 사역 천사 - 최종 경고. 성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것은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하여 해 아래 새 것이 없느니라. 당신이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거 새로운 거야? 그것은 우리 이전의 지난 몇 세기 동안의 일이었습니다.” (전도 1:9, 10)

셋째 인의 본문에는 넷째 천사 사역이 다음과 같다는 추가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최후의 경고는 예언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계시하는 것은 “가운데로부터” 오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네 마리 동물에게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세 되니라 하였더라

데나리온; 기름과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계 6:6). 데나리온은 그 사람에게 주는 월급이었습니다.

하루의 일을 하는 노동자. 표시된 부분은 사용된 금액을 나타냅니다.

하루, 음식에. 그러므로 하루에 한 데나리온을 버는 것은 먹기 위해 일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아니면, 말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수입은 필수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사역 지도자

그들은 이 말이 특히 그들에게 적용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10일의 예언적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둘째 인의 때와 둘째 교회(계 2:10)는 우리가 이해하는 바에 따르면

6월/7월에 두 권의 책이 출시되면서 발생한 사역의 분열 이정표

2008년부터 2018년 6월/7월까지 우리를 데려갔습니다. 그 이후로 이 작업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특히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셋째 인에서 당신의 종들에게 환난의 때를 알리시는 예수님의 음성

이는 그분의 백성에게 바울과 같은 경험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 계획의 일부임을 보여줍니다.

나는 또한 풍요를 누리는 방법도 알고 있습니다. 모든 일과 모든 일에 내가 지시를 받았으니 이 둘은 다

배고픈 것처럼 많이; 풍부하기도 하고 궁핍하기도 하다”(빌 4:12).

이 시점에서 우리 목회자들 중 누구도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는 그러한 고귀한 유산을 물려받은 이 새로운 사역의 구성원은 자신을 높입니다. 글썄, 우리가 본 것처럼

여기 사람들이여, 그들이 자랑스러워하는 한 지나갔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구성하실 수 있다.

그분의 임재, 참된 교회. 그리고 참된 교회의 상태는 오직 유지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지도자들이 믿음으로, 유순하고, 복종하고 순종함으로써 그분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때

그분의 뜻대로. 우리 자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매우

결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 세상의 가증한 것들과 가증한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멸하시려고

그것들은; 이는 아무 육체라도 그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고전 1:28, 29).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강한 사람은 자기 힘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부자는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하라 이는 그가 나를 깨닫고 나를 아는 것과 내가

이 땅에 자비와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주님; 나는 이런 일을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선생님”. (예레미야 9:23, 24).

셋째 인의 기간에 해당하는 셋째 교회에 보낸 편지는 다음과 같다.

우리를 위한 추가 경고: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이 있으니 내가 네 행위와 네가 거하는 곳을 아노니 거기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요 사탄; 너는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내 마음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반대할 것이 몇 가지 있느니라 거기에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으니 그는 발락을 가르쳐 걸림돌을 던지는 자니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들로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음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포크. 2:12-14). 발람의 가르침은 다른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충성에서 멀어지게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첫 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출 20:3)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의미로 보면 매우 넓은 의미를 갖습니다. 모든 연습, 습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큰 애정을 쏟는 사람이나 물건. 모든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도록 격려합니다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한 하나님(신 6:5) 우리에게 적용하려면 완전한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을 섬기는 일.

우리는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날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마지막 세대의 신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돌아오시는 것을 볼 사람입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하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승리는 피해야 할 지옥이다. 세상에 경고하고 빛을 나누는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은혜롭게 주신 것입니다.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를 흡수할 것입니다.

교회에 보낸 메시지로 돌아가서, 가져온 또 다른 위험에 대해 특별히 강조하고 있음이 주목됩니다. 발람의 가르침에 따라: “음행하게 하라”. 가는 곳마다 관능미가 드러난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토록 많은 왜곡에 직면하여 경계심을 늦추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것을 '정상'으로 이해하고, 우리 자신도 여기에 빠지지 마십시오. 유혹과 죄 속에서. 우리는 영혼의 입구를 최대한 지켜야 합니다. 말하다 주님: “내 눈을 돌이켜 헛된 것을 보지 않게 하시고 나를 살리시어 주의 길에서”(시편 119:37). 같은 맥락에서, 몸을 적절하게 가리는 것은 “간음하지 말라”(출 20:14)는 주님의 계명에 내포된 의무입니다. 우리는 적절한 옷을 입어야 하며 누구에게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를 나쁘게 생각할 기회가 되었습니다.

인봉을 읽으면 하나님의 교회가 무서운 시련을 기다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넷째 인을 떼었을 때에 넷째 짐승의 음성이 나서 이르되 와서 보라 하더라 그리고 내가 보니, 보라. 청황색 말이 있고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라 하니라 그리고 지옥이 그를 따랐다. 그것은 그들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과 전염병으로 땅의 사분의 일을 죽이는 권세를 받았으나 땅의 짐승들”(계 6:7, 8). 청황색 말은 이 시점에서 갖게 될 어머니 교회를 상징합니다. 리더가 바뀌었어요. 그 위에 탄 사람에게 붙은 “죽음”이라는 이름은 “죽음을 가진 자”를 적절하게 상징합니다. 사망의 권세 곧 마귀니라”(히 2:14). “마귀”라는 이름은 사탄의 능력을 강조합니다. 양모를 눈 위로 당기십시오. 바울은 디모데에게 신자들이 알고 순종하도록 일하라고 권면합니다. “진리로... 마귀의 결박에서 벗어나”(딤후 2:25, 26). 기사의 상징 넷째 인은 마귀가 그 안에 표현된 교회를 속일 것임을 보여줍니다. 회원 그들은 종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참된 종들을 박해하고 죽이기 위해 협력할 것입니다.

나머지 봉인과 각각의 준수 여부에 관해 아직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에 보내는 편지. 그러나 곧 펼쳐질 끔찍한 시나리오를 고려해 신중하게 여기서 끝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 책의 목적은 독자가 다음을 통해 수세기에 걸쳐 신성한 황금실을 따라가면서 오늘날 참된 것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성경 예언의 성취로 나타난 지상 하나님의 교회. 에서 드러난 폭로 이 책의 장들은 진실한 사람을 설득하기에 충분한 증거를 제공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후기 성도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로 식별합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계시록 14:12); 그리고 또한 “예수의 증거를 가지라. 그것은 예언의 영이다”(계 12:17; 19:10). 타락한 교회를 떠나도록 모든 사람을 초대합니다. 다음 말씀으로 참된 교회에 연합하십시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들의 죄에서 벗어나고 그들이 받을 재앙들을 너희가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왜냐하면 당신의 죄는 이미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계 18:4, 5). 진심이 담긴 소망 하늘과 우리의 교회는 제시된 모든 증거를 고려하여 결정을 내립니다. 현명하게 진리의 표준을 올바르게 유지하려는 노력에 참된 교회에 참여하십시오. 아멘.

제8장

요약하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래로 오직 하나, 오직 하나의 참된 교회가 있었습니다. 각 세대. 그러나 여러 시대에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그분은 그는 여러 번 배도한 이전 교회를 계승한 교회를 구성한 다른 사람들을 일으켰습니다. 그리하여 교회의 계승 서열이 있게 되었다. 이것은 전체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참된 교회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라 (계 14:12)
- “예언의 영”을 갖고 있는데, 이는 회원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존재한다는 것과 그들의 시대에 성취될 성경적 예언에 대해 빛을 가지십시오(계시록 12:17;19:10).
- 그것이 출현하는 시기와 상황은 성경의 예언에 명시되어 있다(예: 겔 21:25-27; 다니엘 9:24, 25; 사도행전 8:1-4; Apoc. 2:4, 5).

그 특성을 알면 언제든지 식별할 수 있습니다. 라인

참된 교회의 계승,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은 교회들로 구성됨

각자의 시대에 그분의 말씀의 빛을 보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금실”을 구성합니다.

수세기에 걸쳐. 아래 그래프는 이름 또는 지정된 대리인의 이름을 나타냅니다.

성경에서. 일부 오래된 날짜(이스라엘까지)는 대략적인 것입니다.

O fio de ouro ao longo dos séculos



오늘날 참된 교회는 넷째 천사 사역-마지막 경고이다.

그러나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은 역사가 충분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현재의 궤적을 계속해서 추구해야 합니다.

그 앞에 자기를 낮추고 순종하며 세상에 전파하며 그리스도의 고난을 참으며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망각하고 자기를 높일 때마다

그리고 그들의 의견은 그들이 스스로 밝힌 불꽃의 빛 속에 남겨졌습니다. 그리고 신성한 촛대

진리는 그들에게서 빼앗겨 하나님께 기쁨으로 복종하고 뜻을 이루는 겸손한 자들에게 주어졌느니라

당신의 뜻.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 있는 자는 자랑하지 말라

그의 지혜가 있으니 강한 자가 그의 힘을 자랑하지 못할 것이요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고 오직 그 사람은

자랑하거든 이것을 자랑하라 곧 나를 깨닫고 나를 아는 것과 나는 여호와인 것을 자랑하라

지구상의 자비, 심판, 정의;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예레미야 9:23, 24).

“모든 것보다 더 넘치게 하실 수 있는 이에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 영광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거나 생각하노라 모든 세대에, 영원히. 아멘!" (에베소서 3:20, 21). 응, "앞은 이에게 보좌와 어린 양에게 모든 사람에게 감사와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주시길 원하노라 항상"(계 5:13). 그리고 이 겸손한 일에 동참하기 위해 오는 회원들과 모든 사람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재림하실 때까지 이 사역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심어린 소망.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부록

에스라 7장에 근거한 메시지: 산 자들의 심판에 대한 선포

... 심판 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산 자의 ...

주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조언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하느니라.” 요한복음 5:39

예수님은 성경이 그분을 증거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 이야기가 구속 계획에 서 인간을 위한 그분의 사역의 일부를 드러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 각각에게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예표나 상징이 되는 이야기를 지닌 인물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을 계시합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에스라서 7장을 읽고 거기에 예시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사명의 일부를 이해하려고 노력합시다.

“이 일 후에 바사 왕 아닥사스다가 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스라야의 아들, 아사랴의 증손, 힐기야의 현손... 대제사장 아론아,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다.” 에스라 7:1-5.

에스라는 과거 최초의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후손이었습니다. 아론은 참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했습니다. 에스라는 아론의 직계 후손이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혈통에 속했으며,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에서 그리스도를 대표합니다.

에스라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모세의 율법에 정통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왕이 그에게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더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이스라엘에게 그 율례와 율례를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음이라(스 7:6, 10).

에스라는 율법을 구하고 성취하며 가르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사역은 또한 하나님의 율법(십계명)을 성취하시고 오늘날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통해 우리에게 그 율법을 성취하는 방법을 가르치고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11절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읽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와 말씀과 계명과 율례를 기록한 제사장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준 편지의 초본은 이러하니라”(스 7:11)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만일 그가 아닥사스다 왕으로 대표되는 예수를 대표한다면, 그가 에스라에게 준 편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해를 돕기 위해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만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문안하노니 평강이 있을지어다”
에스라 7:12

편지의 시작 부분에서 왕은 "왕 중의 왕"이라는 칭호로 자신을 식별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만왕의 왕이라는 칭호를 가진 사람은 누구입니까? 디모데전서 6:15, 16을 읽어보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며; 그는 홀로 불멸을 가지시고 가까이 갈 수 없는 빛에 거하시니 이제까지 아무도 본 일이 없는 자라”(디모데전서 6:15, 16)

만왕의 왕은 “아무도 본 일이 없는” 그분입니다. 예수께서는 땅에 계실 때 많은 사람에게 보이셨고, 승천하신 후에는 사도 바울과 다른 여러 사람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 중의 왕 에스라 이야기에서 아닥사스다(Artaxerxes)는 아버지 하나님을 대표하며, 그가 에스라에게 준 법령, 즉 편지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법령을 나타냅니다. 이 법령은 무엇을 말하는가? 에스라 7장 13절을 읽어보자:

“내 나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가운데서 너희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가야 한다고 내가 명하였다.” 에스라 7:13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구든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고자 하는 사람은 가라 하셨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누구입니까? 바울은 로마서 9:6, 8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실 이스라엘 전체가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이 하나님의 자녀는 엄밀히 말하면 육신에 속한 자녀가 아니라 육신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후손으로 여기겠습니다. 약속하세요.” 로마서 9:6, 8.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하신 바를 성취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실제로 빛이 있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아버지라” (고전 8:6)라고 말씀하실 때, 그분은 실제로 자신이 아버지 한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안식일부터 거룩하게 지키라”(출 20:8)고 하신 것처럼, 이 말씀에는 예수께서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 있어 이를 믿는 사람을 안식일 준수자로 변화시켜 안식일을 지키게 하신다. 믿음으로 안식을 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예수님에게 명령을 내리시면서 누구든지 자기와 함께 예루살렘에 가고자 하는 자는 가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역사에 따르면, 그분은 만왕의 왕의 명령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을 향해 어디로 떠나십니까? 에스라 7장 9절을 읽어보자:

“바벨론에서 떠나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 7:9.

에스라는 바벨론을 떠났습니다. 이는 우리의 대제장이신 그리스도께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사람들을 인도하라는 “만왕의 왕”, 즉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으셨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과거에,

바벨론은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 거짓 신, 삼위일체를 숭배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녀에게는 다음과 같이 말한 자랑스러운 왕이 속해 있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왕궁을 위하여, 나의 큰 능력과 나의 위엄의 영광을 위하여 건축한 큰 바벨론이 아니냐?” 다니엘 4:30.

교만한 왕 느부갓네살은 바빌로니아 사람들 사이에 존재했던 교만의 상징이자 “자기”에 대한 사랑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 시대에 적용해 보면, 에스라가 예시한 예수께서는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이 바벨론 교리인 “삼위일체” 숭배를 버리고 “자기”를 완전히 버리도록 인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주민의 영적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거짓 신, 삼위일체, 그리고 전체 “자기”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예루살렘의 주민으로 간주되도록 이끄는 사명을 갖고 계십니다.

바울은 그들이 하늘의 도성 예루살렘에서 왔으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종노릇에서 해방되어 이교의 모든 교리와 자아를 다 버리고 예수께서 그들의 마음에 왕노릇 하신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 (죄의 종노릇에서 해방되었고 자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곧 우리 어머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는... 자유하는 자의 자녀라.” 갈라디아서 4:26, 31.

에스라 7장에 제시된 법령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에스라가 예시한 예수님을 바벨론의 영적 상태에서 원하는 자들을 예루살렘의 영적 상태로 데려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편지에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자는 보내라”(에스라 7:13)고 말씀하십니다.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따를 수 있으며, 그분이 우리 마음에서 바벨론의 삼위일체 교리를 제거하게 하고 자아를 그분께 완전히 굴복시켜 그분에 의해 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에스라 7장에서 이 순서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에게 또 무엇을 명하셨는가?

에스라 7:14을 읽어보자:

“너는 왕과 일곱 모사의 명령을 받아 네 손에 있는 네 하나님의 율법을 좇아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조사하라”(스 7:14).

하나님께서 에스라로 대표되는 예수에게 INQUIRY, 즉 INVESTIGATION을 수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생각나게 합니까? 대제사장인 예수께서는 1844년부터 어느 날 그분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의 책에 대한 조사를 수행해 오셨으며, 각 사람은 그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는 심판이 죽은 의인에게서 시작되었음을 압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는 산 자의 사건으로 옮겨간다.

에스라 7장의 이 조서에서는 그에게 생명의 사건을 조사하라는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아니면 죽은 사람? 25절과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야 너는 네 하나님의 지혜를 좇아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백성 곧 네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와 알지 못하는 자를 재판하도록 행정관과 재판관을 삼으라. 알다. 네 하나님의 법과 왕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사형에 처하거나 사로잡히거나 재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두는 판결을 받으리라.” 에스라 7:25, 26

본문은 에스라가 율법을 “아는” 자들을 재판하고, 왕의 법을 모르는 자들에게 “알려주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해 아래서 행하는 일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에(전 9:5),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 명령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 7장은 살아 있는 사람들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 자를 심판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법령에서 예수께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백성, 즉 하나님의 현대 이스라엘의 살아 있는 구성원들을 심판하는 일을 시작하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이 예시되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즉, 이 명령은 예수님께서 산 자에 대한 심판을 시작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법령은 언제 하늘에서 반포됩니까? 우리가 이 질문에 대답하는 것은 확실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심판에서 우리의 사건이 영원히 결정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산 자의 심판의 때가 언제 올지 알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이해시켜 줍니다. 도둑”(I Thess.

5:4). 답을 찾기 위해 에스라 7:8, 9을 읽어 보겠습니다.

“에스라가 이 왕의 일곱째 해 다섯째 달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 첫째 달 초하루에 그가 바벨론에서 떠났고 그의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렀느니라.” 에스라 7:8, 9.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하나님 아버지) 제칠년에 명령을 이행하여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제칠” 해 에 하느님께서서는 예수에게 살아 있는 사람들의 경우를 조사하기 시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올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통치하시는 분이시며 앞으로도 영원히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곱째 해가 그분이 통치를 시작한 일곱째 해에 해당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 그러면 하나님의 “제칠” 해가 무엇인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 성서는 하느님의 정부에 관해 이렇게 말합니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돌렸고 공평과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로다” 시편 97:2. 보좌 곧 하나님의 정부는 공의와 심판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시편 119:172에는 “그의 계명은 다 의로우시도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 하나님은 그분의 율법을 통해 우주를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공의와 심판**이 그의 보좌의 기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곱째 해는 그분의 율법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십계명을 읽어 보면 일곱 번째 해에 대한 문자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칠일”의 안식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있어 예언적 날은 기록된 대로 1년과 동일합니다: “매 일은 한 해를 의미한다” (민수기 14:34).

따라서 일곱째 해, 즉 안식년 이라는 개념이 십계명의 율법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계명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신명기를 연구할 때,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곱째 해를 안식년으로 제시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 그 땅은 여호와께 안식일이라 ; 너는 네 밭에 파종하지 말며 네 포도원을 가꾸지 말라.” 레위기 25:4

하나님께서서는 안식년에 또 다른 일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우리의 연구 주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매 7년이 끝나면 당신은 증상이 완화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탕감의 길입니다. 이웃에게 무언가를 빌려준 모든 채권자는 그가 빌려준 것을 갚을 것입니다. 그는 자기 이웃이나 자기 형제에게 그것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여호와 의 용서가 선포되었기 때문이다.

낯선 사람에게 요구하면 되지만 네 형제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갚아야 한다. 네 형제 중 히브리 남자나 여자가 네게 팔리면 그가 육년 동안 너를 섬길 것이다. 일곱째, 당신은 그를 풀어줄 것입니다.” 신명기 15:1-3, 12.

하나님께서서는 사면의 해에 두 가지 일이 일어나도록 결정하셨습니다.

1. 이스라엘 자손의 빛을 탕감 받았으니
- 2 - 이스라엘 자손 중에 종 되었던 자들이 자유를 얻었느니라.

이 두 가지 특성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과거에 안식년이 언제 있었는지 알 수 있으며, 이로써 우리 시대의 일곱째 해, 즉 산 자에 대한 심판을 시작하라는 명령이 내려지는 해가 언제인지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들에게 자유가 선포되는 해인 안식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라나신 나사렛으로 가시다가 어느 토요일 자기 습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나시니라.

17 이에 선지자 이사야의 책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곳을 찾으시니라

18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19 그리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십시오.

20 책을 덮어 그 말은 사람에게 돌려주고 앉으셨다.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에게 눈을 고정했습니다.

21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누가복음 4:16-21.

위 본문에 표시된 날에 예수님께서 “주의 성령이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포로들을 자유롭게 하려 하심이라”는 예언을 읽으셨습니다. 이 일은 안식년, 즉 일곱째 해로 예표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오늘 이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사야서를 읽으셨던 그 해는 안식년, 곧 일곱째 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언이 오늘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신 해는 서기 26년에 시작하여 서기 27년에 끝나는 안식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시대의 안식년이 무엇인지 알려면 간단히 계산하면 됩니다. 우리가 우리 시대에 이를 때까지 7년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안식년이 2000년에 시작되어 2001년에 끝났고, 다른 안식년이 각각 2007-2008년과 2014-2015년에 일어났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예언에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산 자에 대한 심판을 시작하라고 명령하신 때는 일곱째 해입니다. 그러면 어느 안식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까? 알기 위해서는 역사가 반복된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이미 이루어진 일은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전 1:9). 유대인들은 안식일 진리의 보고였습니다. 아닥사스다의 법령에 따라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지켜 참 숭배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내 나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 누구든지 너희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자는 너희에게 있는 너희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갈 것이니라 강 건너편 모든 백성 곧 너희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모든 사람을 재판할 행정관과 재판관을 세우라 그리고 그것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가르쳐 주십시오. 누구든지 네 하나님의 법과 왕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심판을 받으라”(스 7:14, 25, 26).

이는 실제로 참숭배를 다시 확립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에서 유일신교를 배웠고, “이스라엘에게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오직 하나이시니라”(신 6:4)고 기록된 대로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했습니다.

현재에도 역사가 반복되어야 합니다. 안식일 준수자로 알려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 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돌아오도록 부름을 받을 것입니다. 과거 에스라의 본을 따라,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관사와 재판관”을 세우셔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알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은 “가르칠 것입니다”. 최근 수십 년 동안 유대인의 수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안식일 준수자 그룹이 된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보다 많았습니다. 그런 다음 과거와 마찬가지로 그들에게서 세상을 유일신교, 즉 유일신으로서 아버지를 예배하도록 가르치도록 그리스도로부터 위임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성서가 가르치는 바와 같이,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라.”(고린도전서 8:6).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들은 처음에는 유일신교를 믿었지만 나중에 1931년에 그들의 신앙에 삼위일체를 포함시켰습니다. 이는 교단의 연감을 읽어보면 쉽게 입증됩니다. 그러나 70년이 지난 2001년, 하나님께서는 나라의 여러 지역에서 반란을 일으키셨습니다.

교단의 구성원들이 거짓 예배를 깨고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돌려드려야 한다고 선포한 세상에서 올해는 하나님의 손길을 받아 이 경험을 살았던 모든 사람들에게 역사적인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에스라서에 예표된 내용이 성취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본 것처럼 2000-2001년은 안식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참송배를 강조하면서 소식을 전파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에는 심판의 도래를 알리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로다. 그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계 14:7).

이 메시지는 오늘날에도 울려 퍼집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으니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요한복음 3:19). 그러므로 산 자는 이미 심판을 받고 있다. 이 메시지를 받아들일지 거부하느냐에 따라 모든 사람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안식년은 빛을 탐감해 주고 영원히 탐감해 주는 해였습니다. 일곱째 해에 이루어진 이 용서의 사역은 하늘에서 완성되는 참된 용서를 상징했습니다. 진정한 빛은 죄의 빛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삯은 사망이요”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상황을 분석하실 때, 그분은 당신의 죄를 영원히 지워 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영원한 죽음을 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책을 검토하실 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까? 우리의 이름이 승인되면 제임스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복종시키라. 그러나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마귀가 여러분에게서 도망갈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너희는 마음을 깨끗이 하라. 슬퍼하고, 한탄하고, 울다. 너희 웃음을 울음으로, 너희 기쁨을 슬픔으로 바꾸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야고보서 4:7-10.

하나님의 심판에서 승인을 받기 위해 우리 모두 이 조언에 유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산 자의 심판에서 의롭다 함을 받고 자기 영혼을 구원하는 방법을 더 알고 싶으십니까? 입력하다
연락하다:

넷째 천사 사역 - 마지막 경고
왓츠앱: (+55) 41 99509 8425
advertenciafinal.com.br

이메일: contato@advertenciafinal
youtube.com/tvadvertenciafinal

페이스북: Ministerioadvertenciafinal